

컨사이스 바이블

복음



THE CONCISE BIBLE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소식

음원 (오디오)



사단법인 섬기는손
SERVING HANDS CORPORATION

발행 사단법인 섬기는손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로 46-14,
103호 (우편번호 18544)
+82 (070) 4046-0584
www.serving-hands.org

인쇄 2024년 12월 15일 초판 인쇄 발행

©사단법인 섬기는손, 2024

사전의 서면허가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Copying any part of this book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is prohibited.

비매품 무료로 드립니다.

배송비 별도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길보아산에서

머리말

이 컨사이스 바이블(간추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이 책의 본문은 성경 자체를 간추린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성경의 줄거리와 내용을 읽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약속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인 예수와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자신들의 삶에서 성경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후, 성경책을 구해서 성경 자체를 읽도록 권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훈련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테후서 3장16절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글자인 “약”은 선언(문), 언약(서)¹, 유언(장) 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보증으로 한 언약 또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구원의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²의 상속자로 만들었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없앴다고 확신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죄인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이 약속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언약을 구약, 그리스도 이후의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민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약 성경은 기원전 (주전, B.C.) 1,500-400년 사이에 여러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율법서, 역사서, 대언서³, 시가서 등을 포함한

1 언약: 언약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며, 이것은 영원하며 반드시 지켜진다.

2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한다.

3 대언서: 대언(代言)은 주 하나님께 직접 듣고 그 들은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예언(豫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을 대언자 그리고 대언을 기록한 것을 대언서라고 하며, 예언서라고도 한다.

39권의 책들로 구성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대언서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예언(豫言)들이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신약 성경은 서기(주후, A.D.) 30-90년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가르침을 수록한 4 복음서, 사도행전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21편의 편지 등을 포함하여 총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대언으로 불리는 구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성경의 모든 대언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대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21절

목차(차례)

제1장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음 (창조)	4
각기 종류대로	4
종(種)의 기원(起源)	5
인류의 시작	6
에덴동산	7
마귀에게 속다	8
죄의 저주, 죽음	9

제2장 “내가 땅을 파멸하리라”

노아와 방주 (方舟)	14
대홍수	16
하나님의 축복하심	18

제3장 새로운 약속

왜 악행을 계속하는가?	22
악한 자들은 저주받으리라	24
영원한 하나님	26
쓸데 없는 우상들	27
하나님의 위로	30
부활의 아침	31

제4장 메시아께서 오신다

“임마누엘”	36
정의로운 심판자	37
그는 죄를 없애리라	39
그의 부활	40
하나님의 생명에로의 초대	41

마지막 심판의 날	42
페르시아 왕이 세상에 보낸 메시지	44
평화의 왕국	45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46

제5장 구원자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54
한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55
예수의 탄생	57
목자들과 천사들	58
동방박사들의 방문	59
이집트로 피난 가다	60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였다	60
성전에서의 소년 예수	61
세례자(침례자) 요한의 전도	62
예수께서 세례(침례)를 받다	63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64
하나님의 어린양	65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다	66
어부 네 명이 예수를 따라가다	67
전도와 치유	68
참된 복	68
너희에게 화(禍)가 있으리라	69
사랑과 자비	70
땅의 소금; 세상의 빛	70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71
너희가 기도할 때	72
하늘에 쌓아 둔 보물	73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7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5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75
거짓으로 믿는 자	75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여라	76
--------------------------	----

제6장 경이로운 말씀: 위대한 행적

죄를 용서하는 권세	80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81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다	82
갈릴리 바닷가에서 치유하심	83
너의 믿음이 너를 낮게 하였다	83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84
천국과 지옥	85
부자 청년	87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라	88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88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다	89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90
평화가 아니라 칼	90
예수를 환영한 사람이 받을 상급	91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91
어린이들과 하나님 나라	92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93
예수와 니고테모	93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95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95

제7장 배척당하시다

사람의 전통들	100
사람을 더럽히는 것	100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101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102
예수를 제거할 음모	103
부자와 가난한 자	104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징수원	106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107
예수 동생들의 불신앙	107
유대인의 절기에 나타나신 예수	108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109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109
지도자들의 불신앙	110
세상 종말의 징조들	111
극심한 고난	112
사람의 아들(인자)의 두 번째 오심	113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리라	114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116
예수께서 우시다	117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118
예수를 죽일 음모	119
예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120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였다	121
예수께서 배척당하셨다	121

제8장 인류의 죄를 위하여

최후의 만찬	126
그 길과 진리와 생명	127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약속	128
세상의 증오와 박해	129
예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시다	130
예수께서 체포되시다	131
산헤드린에서의 심문	132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였다	134
빌라도 앞에 서심	135
빌라도가 예수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다	136
사형선고	137
십자가 처형	138
십자가에 달린 도둑	140

예수의 죽음	140
예수의 매장	141
인봉한 무덤과 로마 경비병	142

제9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아침	146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147
경비병들과 유대 제사장들	147
엠마오로 가는 길	14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150
온 세상으로 가라	150
보지 않고 믿는 자들	151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152

제10장 때가 가깝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156
사람의 아들의 모습	156
하늘의 보좌	159
하늘과 땅이 흔들리다	159
흰 옷 입은 거대한 무리	160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162
다섯 번째 나팔	163
여섯 번째 나팔	163
일곱 번째 나팔	165
최후의 심판	165
모든 것이 새롭게 되다	166
새 예루살렘	167
생명수의 강	168
때가 가깝다	169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69

제11장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소망

마지막 때	174
주님의 날	175
우리의 영원한 소망	175
하나님의 징벌	176
적그리스도의 출현	177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	178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179
거짓 그리스도인	180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리라	181
인내하기를 배우라	182

제12장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복음의 능력	187
죄의 근원	188
인류의 타락	188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189
아무도 의롭지 않다	190
믿음으로 오는 의로움	191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192
욕심에서 떠나기	192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193
우리의 소망	194
미래의 영광	195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195

제13장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섬김	200
일상생활에서	200
악을 이기십시오	200
최고이신 그리스도	201
그리스도의 모범	202

옛 생활 방식을 벗어 버리시오	202
새 사람과 새 소망	203
영원한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204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	205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206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206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206

제14장 사랑

예수의 말씀	210
사랑	210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212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1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13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오	214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214

제15장 지혜의 샘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218
------------------------	-----

제16장 찬양 노래와 기도

두 가지 길	238
하나님을 묵상함	238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교훈	240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	242
회개의 기도	243
동틀 녘에 드리는 노래	244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246
젊은이의 기도	247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	248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50

"나는 선한 목자이다. 목자는 양들을 위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11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 장 16 절

안드로메다 성운

제1장 맨 처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들을 말해줍니다. 놀라운 생명력과 복잡미묘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왜 창조되었는지, 인류는 자신의 창조자를 어떻게 반역하고 무시해버렸는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분이 내리신 무서운 죽음의 저주에 대하여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의 심판을 짊어진 채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참되고 변함없는 기쁨이나 평안도 없이,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병든 자이거나 건강한 자이거나, 우리는 머지않아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는 모두 창조주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정의로운 법을 무시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이 아니라 그분의 법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람도 이 두려운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음 (창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그때 땅은 모양이 없고 텅 비어 있었으며, 아주 깊은 물 위에는 어두움이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다니고 계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니 좋으셨다. 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 사이를 나누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창공이 있어 물과 물을 갈라놓아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은 한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곳을 “땅”이라고 부르고, 그 모여 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나게 하여라. 낱알을 맺는 식물과 씨가 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각기 종류대로 땅 위에 돋아나거라.”라고 말씀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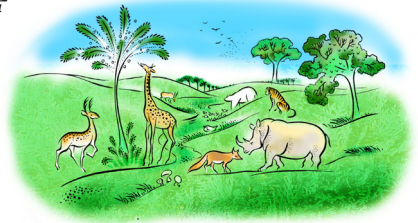


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자 땅에는 풀이 나고, 각종 낱알을 맺는 식물과 각기 씨를 가진 과일을 맺는 나무들이 모든 종류대로 돌아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여라. 이것들이 절기와 날과 연수를 알리는 징조¹가 되리라. 또한 이것들이 하늘의 창공에 있어 땅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개의 빛을 만드셔서, 그중에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창공에 두셔서 땅을 비추어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넷째 날이었다.

종²(種)의 기원³(起源)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하늘의 창공에는 새들이 땅 위를 날아다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헤엄치고 떼를 지어 다니는 큰 바다 생물들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창공에 나는 날개 달린 새들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축복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잘 길러 번성하여



1 징조: 징조(徵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현상이나 모습이다.

2 종: 종(種)은 동식물들의 모든 종류를 뜻한다.

3 기원: 기원(起源)은 사물이 처음으로 생김을 뜻한다.

라.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땅은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 즉 가축과 기어 다니는 것과 야생동물을 생산해내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사는 야생동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으셨다.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본성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창공의 새들과 짐승들과 온 땅과 그 위에 기어 다니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본성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본성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아 잘 양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책임져라. 바다의 물고기와 창공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온 땅의 낱알 맺는 식물과 씨가 있는 과일을 맺는 나무 모두를 너희에게 음식으로 주노라. 또한 이 땅의 생물, 모든 짐승과 창공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이 식물을 먹이로 주노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



든 것을 보시니, 아주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니, 여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에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다고 선포하셨다.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시던 일에서 쉬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시던 때의 땅과 하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다.

에덴동산

주 하나님께서 땅에 아직 비를 보내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어서, 땅에는 초목도 없었고 어떤 식물도 싹을 틔우지 않았다. 하지만 땅에서 물이 나와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손수 지으신 사람을 살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는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여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보살피도록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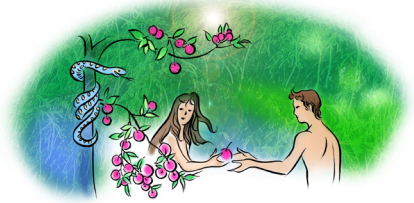
4 “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야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께 사용하신 이름(“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 본서에서는 “주” 혹은 “여호와”로 표기.

때도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다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뱀⁵이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일 그것을 먹거나 만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다시 말했다.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고, 그도 그것을 먹었다.

5 뱀: 성경 전체에서 마귀(사탄)는 종종 뱀으로 불린다(예, 요한계시록 12:9)

죄의 저주, 죽음

그리고 서늘해진 저녁때 남자⁶와 그 아내가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불러내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지금 한 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말하였다. “뱀이 그랬습니다. 그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고통,
특히 출산의 아픔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너는 심한 고통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6 “남자”: 히브리어로는 “아담”. 히브리어로 “땅”(‘아다마’)과 비슷하게 발음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너는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수고해야만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너는 들에서 나는 식물을 먹어야 할 텐데,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 줄 것이다.
 너는 네가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이브⁷라고 지었는데,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
 에게 입혀주셨다.

7 “이브”: 히브리어로 “산 자들의 어머니”

"너는 흙에서 만들어 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으므로
내가 반드시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창세기 6장 13절

제2장

“내가 땅을 파멸하리라”

인간의 폭력과 죄악을 참아내기에 너무나 힘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숨 쉬는 모든 것을 파멸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높은 산, 깊은 협곡, 바위 속 등등)에서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린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인해 파멸된 동물들의 화석과 잔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심판은 불로 파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하늘은 큰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들은 불과 열에 녹아버리고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노아와 방주¹ (方舟)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땅 위에 널리 퍼지고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속으로 몹시 슬퍼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동물과 땅에서 기는 것과 하늘의 새와 함께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나는 이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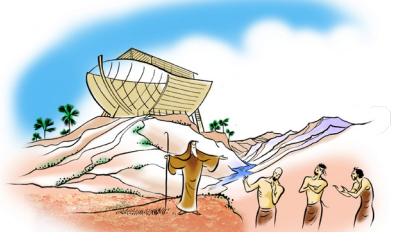
하지만 노아는 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는 같은 시대 사람들 가운데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는 세 아들들의 아버지였다. 그들은 셈, 함, 야벳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썩었고 땅 위에는 어디에서나 불법이 넘쳐났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미 아셨는데, 이는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으므로, 내가 저들을 모두 끝내 버리기로 했다. 내가 저들을 땅에서 모두 없애 버릴 것이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많이 만들고, 그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거라. 너는 그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 배의 길이는 150m, 폭은 25m, 높이는 15m가 되게 하여라.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50cm 정도 올려 덮고, 옆에는 문을 내라. 배를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 땅에 어마어마한 폭우를 보내겠다. 이 물들이 땅에 들이닥쳐 하늘 아래 숨 쉬는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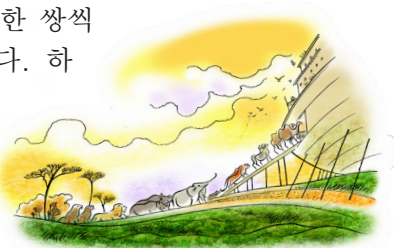
¹ 방주: 방주는 직사각형의 상자처럼 만들어진 것으로 홍수의 물에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배는 아니다.

것이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의 수컷과 암컷 한 쌍씩을 배에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들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동물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둘씩 너에게 오게 하여 살아남게 하여라. 각종 먹을 양식을 가지고 들어가라. 너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모아들여라.” 그래서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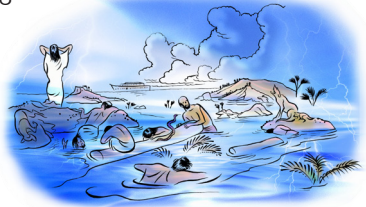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중에 내 앞에서 너만이 올바른 사람임을 나는 꼭 보아왔다. 이제부터 7일 후면 온 지면에 40일 낮과 밤 동안 비를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대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도 노아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명이 있는 암수가 들어갔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



대홍수

7일이 지나자 엄청난 폭우가 땅 위에 쏟아졌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두 번째 달 17일에, 그 날에 모든 깊은 물 샘이 터지고 창공에 있는 폭우의 문이 열려서, 땅 위에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비가 왔다.



땅 위에 내린 이 폭우는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방주가 땅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이 점점 차올라서 땅을 덮게 되었고, 방주는 물 위로 떠다니게 되었다. 마침내 물이 땅의 가장 높은 곳까지 차올라서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을 다 덮어 버렸다. 이렇게 물들이 차올라서 높은 산들을 잠기게 하고도 8m나 더 불어났다. 사람은 물론이고, 기어 다니는 생물, 새, 가축, 야생동물 등 땅에서 번성했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다. 사람부터 가축, 기는 동물, 하늘의 새들까지 모두 땅에서 쓸어버리셨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머물렀던 사람과 생물들만 살아남았다. 물은 150일 동안 땅을 덮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야생동물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깊은 물 샘과 창공의 홍수의 문은 닫히고,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는 그쳤다. 땅에서 물이 서서히 빠져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춰 섰다.

물은 열 번째 달까지 계속하여 줄어들었다. 열 번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40일이 지난 후 노

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그 까마귀는 물이 마른 땅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다시 땅 위에 물이 말랐는지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발을 붙여 앉을 땅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직 물이 온 땅을 덮고 있어서 그 비둘기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가 저녁에 부리에 올리브 이파리를 따서 물고 돌아왔다. 노아는 땅 위에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되었다.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던 해 첫 달 1일에 온 땅을 덮고 있던 물이 다 빠졌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가고 있었다. 그 해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너라. 너와 함께 있는 새, 가축, 기어 다니는 것 등 모든 생물을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온 땅에 퍼져서 새끼를 낳고 길러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왔다. 모든 들짐승, 가축, 각종 새들, 그리고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들이 각기 무리를 지어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때 노아는 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각종 정결한 동물과 정결한 새들을 선택하여 잡아 그 제단 위에 태우는 제물로 드렸다. 주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맡으시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사람의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악할지라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
내가 이번에 한 것처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이지
는 않으리라.

이 땅이 있는 한 씨뿌리는 때와
추수하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멈추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양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라.
창공의 새와 땅에서 기어 다니는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즉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 떨리라.
그들을 너희의 권위 아래 두었다.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즉,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도 언약을 맺는다.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 땅을 멸하는 홍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와 모든 후손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나의 무지개를 세워 둘 것인데,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덮을 때 구름 가운데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나와 너와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와 땅에 사는 모든 동물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요단 강 상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14절



제3장

새로운 약속

대홍수 이후에도 노아는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시 점점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심하게 죄를 짓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몇 백 년 되지 않아 세상은 다시금 흑암 속에 묻히고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말씀)를 전하던 대언자들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고, 많은 대언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언자들을 세대마다 계속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의 대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¹가 유대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바라본 환상²입니다.

왜 악행을 계속하는가?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기르고
양육하였더니,
저들이 나에게 반항하는구나.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먹이통을
알아보는데,
나의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보고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아! 죄인 된 나라여,
불의에 찌든 백성이여,
사악한 종자들,
부패한 자식들아!
저들은 주 하나님을 버렸고,
거룩하신 분을 멸시하였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매를 더 벌고 있느냐?
어찌하여 줄곧 반역만 하고 있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뿐이고,

1 이사야: 기원전(주전, B.C) 760-698년에 살았던 대언자. 그는 박해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져 절반으로 잘리어 순교하였다.

2 환상: 대언자가 아직 이 땅에 나타나지 않은 광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는 초자연적인 계시.

가슴 속은 온통 병들었구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상처 나고 깨져서 심하게 부어 있는데도,
 씻어내고 약을 발라
 싸매 주는 이가 없구나.

“너희 자신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여라.
 내 앞에서 너희의 악행을 버려라.
 악한 행실을 멈추어라.
 선한 행실을 배워라.
 공의를 추구하라.
 압제자를 바로잡고,
 고아를 지켜주고,
 과부의 호소를 변호해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와서 이 문제를 토론해보자.
 너희 죄가
 새빨갳게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 죄가 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이 땅의 좋은 산물을 먹을 것이다.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 죄악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너희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밤 늦게까지 술독에 빠진 자들아!
 너희는 저주받으리라!
 술자리에서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소리는 들으면서도,
 주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은 저주받으리라!
 “하고 싶은 일을 어서 해봐요,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계획한 일을
 일어나게 해봐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악한 자들은 저주받으리라

아! 너희들은 저주받으리라.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자들,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
 아! 너희들은 저주받으리라!
 자기 생각에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가 보기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아! 너희들은 저주받으리라!
 술 잘 마시는 데는 대장이고
 겁 없이 독한 술을 만드는 자들,

뇌물을 받고 죄가 없다 하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자들은 거만하게,
목을 길게 빼고
유혹하는 눈초리로
발목에 낀 발찌 소리를 내면서
영덩이를 흔들며 돌아다닌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들의 머리에 피부병이 나게 하시고
저들의 앞머리털을 대머리처럼 밀어버리시리라.

그날이 오면, 주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 장식, 머리밴드,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팔찌, 반지, 허리띠, 발찌, 발목 장식, 향수, 부적, 손지갑, 면사포, 화려한 옷, 비치는 옷, 너울을 모두 다 벗기시리라.

향수는 썩은 냄새로,
허리띠는 포승줄로 바뀌고,
곱게 땀은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예쁜 옷을 입었던 몸에는 마대 천을 감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수치스러운 낙인이 찍히리라.

아! 저주받으리라!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이 한 짓이 자신들에게 되돌아오리라.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삼켜져 버리듯,
마른 풀이 불꽃에 오그라들 듯,
그들의 뿌리는 썩어지고
그들의 꽃잎은 먼지처럼 날려가리라.
이는 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옥이 목구멍을 크게 열고
 거대한 아가리를 찢어지게 벌릴 것이니,
 귀족과 서민이 함께 떠들며 흥청대다가
 그 안으로 빨려들어 가리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를 반역한 자들의 시체 더미를 볼 것이다.
 그것을 먹는 구더기들은 죽지 않고,
 그것을 태우는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기에,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너희는 모르느냐?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맨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냐?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일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분 눈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메뚜기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얹은 천같이 펼치시고
 그 안에 사람 사는 천막같이 쳐놓으셨다.
 이 땅의 고위층 인사들을 그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위정자들을 수에도 넣지 않으신다.
 저들은 간신히 심기거나 뿌려져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자 시들어 버리고,
 회오리바람이 검불처럼 날려 보내는 식물과도 같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누가 나와 동등하단 말이냐?”라고
 거룩하신 분께서 물으신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군대처럼 그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불러내신다.
 그분의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것들 중의 하나라도 잊지 않으신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겠느냐?
 들어보지 않았느냐?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은 결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기력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

쓸데 없는 우상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은 아무 유익
 도 없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 우상을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창피를 당할 것이다.
쓸데없이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보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창피를 당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서서
놀라고 창피를 당할 것이다.

숯불에 쇠를 달구어 망치로 두들겨
우상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는
그의 힘센 팔로 그 모양을 만든다.
역시 그는 점점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진다.
그는 물 마시는 것도 잊어서 실신할 지경이 된다.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목수는 나무를 줄자로 재고
연필로 그 모양을 그리고,
끌로 깎고,
컴퍼스로 잴다.
사람의 모양을 따라 만들고,
멋있는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절이나 신전에 세운다.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땀감이다.
그는 그 나무의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고,
그 목수는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
그는 그 나무의 반토막은 불을 피우고
그 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는 그 구운 고기를 먹으면서 만족해 한다.

그는 또 불을 쪼면서 말한다.

“아! 따뜻하다. 저 불길 좀 봐라.”

그는 같은 나무의 남은 조각으로 신상이나 우상을 만든다.

거기에다 절하고 숭배한다.

그는 “나를 구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기도한다.

이들은 아는 것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저
들의 눈을 멀게 하여 볼 수
없게 하셨고,



마음을 닫아 깨닫지도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개념도 없고 지혜도 없다.

“내가 나무 반토막은 불을 피워

그 숯불에 빵도

고기도 구워 먹었으니,

그 나머지 반토막으로는 가증스러운 것을 만들어

그 나무에 머리를 숙이고 절할 것이다.”

그는 나무 탄 재를 먹고 사는 셈이다.

그의 현혹된 생각은

그를 더 길 잃고 방황하게 만들어서

그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반문조차 못한다.

하나님의 위로

“내가 주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 이외의 다른 하나님은 없다.
비록 너희는 나를 모르지라도,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이는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나 이외의 다른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빛도 어둠도 만들었다.
나는 행복도 주고 재앙도 준다.
여호와인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였다.
나의 손이 하늘을 펴 놓았고,
내가 하늘의 별들을 명령하였다.

나의 백성아, 나를 주목하여라!
나의 나라여!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훈계가 나에게서 나간다.
나의 정의가 못 나라의 빛이 되리라.
내가 이 일을 재빠르게 이루리라.
나의 정의가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
나의 팔이 못 나라를 심판하리라.

해변의 주민들이 나에게 희망을 두고,
나의 능력을 기대하리라.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땅을 내려다 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낚아지리라.
이 땅의 주민도 하루살이처럼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베풀 구원은 영원하리라.
내가 세울 정의는 언제까지라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정의를 아는 너희는 나를 경청하여라.
나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한 백성들아!
사람들이 주는 망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조롱에 기죽지 말아라.
그들은 좁이 먹어 치우는 옷과 같고
벌레가 파먹는 나무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울 정의는 영원하며,
내가 베풀 구원은 대대에 미치리라.

나 밖에 너희를 위로할 자 또 누가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말라버릴 풀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잊었구나,
너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자를.”

부활의 아침

너희들은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후들거리는 무릎을 힘있게 하여라.
마음이 약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원수 갚으러 오신다.
하나님의 응보³ (應報)가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3 응보(應報): 행위에 대하여 받는 갚음

구원하시리라.”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리라.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꽃같이 피어나리라.
사막에 꽃들이 풍성하게 피고
기쁨과 노래함으로 즐거워하리라.
그들은 주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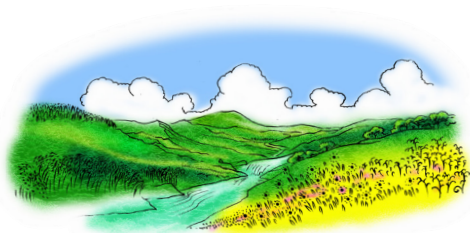
너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너희 시신은 일어날 것이다.
깨어라! 노래하라! 흙먼지 속에 묻혀있는 자들아!
너희 위에 아침 이슬이 내려 앉겠고,
온 땅이 죽었던 영들을 내어놓는다.

그때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리라.
절름거리며 걷는 사람은 사슴처럼 뛰놀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기뻐 노래하리라.
광야에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시냇물이 흘러가리라.
바짝 마른 땅이 물 웅덩이가 되고
마른 대지가 물 샘이 되리라.
자칼이 살던 황량한 땅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무성하리라.

그곳에 큰길이 나서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라.
부정한 이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비록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악한 짐승이 그 위에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값을 지불한 이들만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구속받은 이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리라.
 그들의 머리에는 끝없는 기쁨의 화관이 씌워지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겠고,
 슬픔과 한숨은 홀연히 사라지리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이사야서 7 장 14 절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성문

제4장

메시아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많은 대언자¹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 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은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낼 것이며, 그분이 처음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오고, 다음에는 왕과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온다고 대언자들이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 올 구원자, 왕, 심판자를 대언자들이 부른 이름은 “메시아²”인데, 이분에 대한 많은 예언(豫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1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여 전달하는 사람을 대언자(代言者)라 한다.

2 메시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란 뜻이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로 번역된다.

이사야의 대언들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임마누엘”³

“이는 나의 종, 내가 그를 힘있게 하리라.
이는 나의 택한 자, 나는 그를 기뻐하노라.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부으리니,
그가 모든 나라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소리치거나 고함치지 않아
그의 음성이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이 세상에 공의를 다 펼칠 때까지
그는 약해지거나 용기를 잃지 않으리라.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고 있다!”

하늘을 펼치시고 펴 놓은 분이며,
또 땅을 펼치시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 위를 다니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나 여호와는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주겠다.
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죄수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3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소굴에서 빼내기 위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세워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너를 모든 나라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리니,
 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리니,
 그의 어깨에는 절대주권이 메어지리라.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능한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그 국권은 광대하고
 그 번영은 끝이 없으리라.
 그는 다윗⁴의 왕좌와
 그의 나라 위에서 다스리고,
 공평과 정의로
 지금부터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늘군대⁵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열성으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리라.

정의로운 심판자

여호와와 영이 그분 위에 내려오리라.
 지혜와 명철의 영,
 경륜과 용기의 영,
 여호와를 알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영이 내려오리라.

4 다윗: 이스라엘 2대 왕(주전 1010-971 B.C.). 하나님께 순종한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메시아가 그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다윗은 대언자요 또한 시인이었다.

5 하늘군대: 주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이다. 이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우신다. 이 하늘군대를 신약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을 이긴 수많은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으리라.
그분은 보이는 것만으로
심판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
재판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분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정의롭게 심판하리라.
그분은 그 입의 훈육하는 말로
이 땅을 치고
그 입술의 명령으로
악한 자를 죽이리라.
그분은 정의로 허리에 동이고
충실로 띠를 띠리라.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은 가득하리라.

“보아라, 나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라.
그는 높여지고 올려져서 아주 높이 솟아오르리라.
수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오싹해지리라.
그의 물결은 망가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서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그를 보고 흠칫 놀라리라.
제왕들도 그를 보고 입을 다물리라.

이는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없애리라

우리가 들었던 소식을 누가 믿었는가?
여호와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어린 싹같이,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자랐다.
그는 우리의 눈길을 끌 만
한 풍채도 없고
바라볼 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절당해서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고난의 사람이었다.
그는 외면을 당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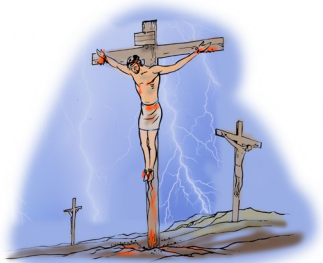
그런데 사실 그는 손수 우리의
질병을 앓아주고
우리의 고통을
감당해 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쓰러
져 고통받는 줄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몸이 찢렸고,
우리의 불의 때문에 그는 으스스해졌다.
그가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 같이 길을 잃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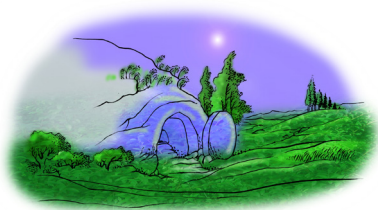
형벌을 받게 하셨다.

그의 부활

그가 탄압받아 고통스러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또 양털 깎는 이들 앞에 선
잠잠한 양 같이,
그는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누가 그의 운명을 걱정해 주었을까?



그가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내 백성의 반역죄 때문에 그가 매를 맞았다.
그는 폭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거짓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처형을 당하고
그 무덤이 악한 자와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때리시고 고통받게 하신 것은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속죄 제물로 내놓았을 때,
그는 그 자손들을 보게 되고,
그는 사는 날이 길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리라.
극심한 고통이 지난 후,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만족해하리라.
 나의 정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짊어짐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는 그에게
 더 많은 유업을 줄 것이며
 그는 최고 최상의 전리품을 받게 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였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꺼림을 받고,
 지배자들에게 종살이하는 너에게,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서며
 왕자들이 절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초대

“오라! 목마른 자 누구나
 물가로 오라.
 돈 없는 너희도 오라!
 와서 사서 마셔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돈을 허비하느냐?



너희는 만족을 주지 못할 것에
 왜 애써 번 돈을 써버리느냐?
 너희는 나에게 유심히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며 가장 좋은 음식으로
 즐거워하리라.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호의를 지켜,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만날 만한 때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악인은 당장 자기 길을 포기하고,
 죄인은 자기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니엘의 대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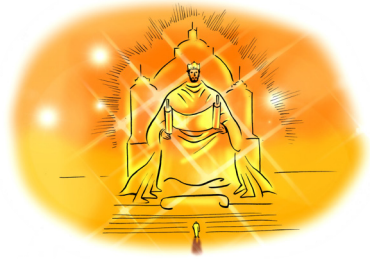
바벨론의 벨사살 왕 통치 첫해에, 다니엘⁶이 그의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마음속에서 환상으로 이루어진 꿈을 꾸었다. 그는 이 꿈을 적어
 놓았는데,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였다.

마지막 심판의 날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왕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맨 처음부터 계신
 이가 그 위에 앉으셨다.

6 다니엘: 다니엘은 기원전(주전, B.C.) 620-520년에 살았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 포로였는데, 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다.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고,
 그의 머리카락은 가장
 흰 양털 같았다.
 그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이고



그 바퀴들도 불꽃을 뿜어대
 는 불이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부터 불의
 강이 흘러오고 있었다.

천천의 천사들이 그분을 받들어 모시고
 만만의 천군들이 그분 앞에 서 있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펼쳐 있었다.

내가 밤에 계속하여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 구름 가운데서 나온,
 사람의 아들⁷같은 한 사람을 나는 보았다.

그는 맨 처음부터 계신 분께로 가는데
 호위 받으며 그분께 나아갔다.
 그에게 다스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이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의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이다.
 하늘 아래 모든 나라와 통치와 큰 나라들이

7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실 때,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면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이 대언을 언급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통치자가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리라.

흙먼지 속에서 잠자던
많은 이들이 깨어나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이들은 수치와 영원한 멸시를 받으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밝은 창공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이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페르시아 왕이 세상에 보낸 메시지

다리오⁸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인종과 언어가 다른 모
든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 다리오는 너희
가 잘 되길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칙령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그 이유는 그분이야말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고 구해 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8 다리오: 다리우스라고도 하며 기원전 (주전, B.C.) 535년경 페르시아의 왕.

스가라의 대언들

다음은 기원전(주전, B.C.) 520-470년 경에 대언 활동을 하던 대언자 스가랴가 전한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국

크게 기뻐하여라,
시온의 백성이여!
승리의 함성을 울려라,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정의롭고 승리하신 왕이시다.
겸손하셔서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예브라임의 전차(戰車)들을 없애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들을 제거하리라.
그분은 전쟁의 활을 없애고,
뭇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어지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어지리라.

그날이 오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 떼 같이 구해내시리라.
이 백성은 왕관에 박힌 보석 같아서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리라.
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백성인가!
곡식은 젊은이들을 번창하게 하고,
새 포도주는 젊은 여자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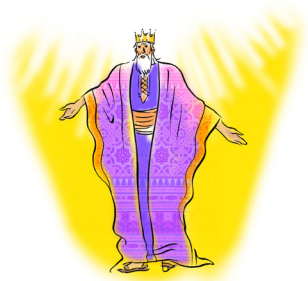
“그날이 오면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주민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이 솟아나리라. 그날이 오면 하늘군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우리니 그것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대언자와 더러운 영을 없애 버리리라.’”

다윗 왕의 대언들

다음은 기원전(주전, B.C.) 1010-97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왕의 대언입니다.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릴 자는
 구름 없는 화창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때의 아침 빛과 같고,
 새삭 위에 내린 물방울이 반짝이는 것과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함께하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명령하며
 내게 다음과 같이 보장하셨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망을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너의 때가 다 되어 조상들과 함께 쉬게 될 때,
네 몸에서 날 너의 후손을 일으켜 그의 나라를 세우리라.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세우리니,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 나는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그를 훈육할 것이다.”

“나의 손이 항상 그와 함께 있어,
나의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원수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어떤 악인도 그를 압제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의 원수를 그 앞에서 박살 내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리라.
나의 성실과 사랑이 그와 함께 있어,
나의 이름 때문에
그가 높아지리라.
그는 나를 ‘당신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라고 부르리라.
나는 그의 가문을 영원하게 하고,
하늘이 있는 한 그의 보좌를 영원하게 하리라.”

말라기의 대언들

다음은 그리스도의 탄생 400년 전에 살았던 대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

“보라, 내가 나의 메신저(특사)를 보내리니
그가 나의 앞길을 닦으리라.
그때 너희가 찾던 여호와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시리라.
보라, 너희가 갈망하던 약속된
메신저(특사),
그가 오고 있다.”
하늘군대의 여호와께서 말씀
하신다.
그러나 누가 그의 오는 날을
견디어 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젖물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때문이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오리라.
점쟁이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와
날품팔이를 등쳐먹는 자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의

자들의 죄를 바로 밝혀내리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늘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나 여호와와는 변함이 없
 으므로,
 너 야곱의 자손도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의 날 이후로
 너희는 나의 법도에서
 돌아서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늘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줄곧 말한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
 우리가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하늘군대들의 여호와 앞에
 슬피하며 행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만한 자가 더 운이 좋고,
 이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더 잘 빠져나간다.”

그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그리하여

그분 앞에 놓인 비망록⁹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이 이름을 가장 높였던 이들의 행적이 기록되었다.

하늘군대들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날에
저들은 나의 소유,
특별한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애뜻하게 생각하듯
나는 그들을 애뜻하게 여기리라.
그래서 너희는 다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분을 섬기지 않는 자의
구별을 알게 되리라.”

“참으로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그 날이 오고 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라도 베어진 나무등치처럼 되리라.”

하늘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가오는 날에는 저들을 삼켜버리고
뿌리나 가지도 남겨놓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유하여,
너희는 외양간에서 밖으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리라.
그 날에는 악인들이 재가 될 것이기에
너희가 그들을 발바닥으로 밟으리라.”

9 비망록: 어떤 화제에 있어서 사건 내용이나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것으로써 기억을 돕는 문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래 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 장 21 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 베들레헨



제5장 구원자 예수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말씀)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서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이시고, 또한 전능한 창조주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비참하고 악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사정없이 못을 박아버려 그분의 손과 발을 뚫고 나간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그분의 얼굴에 맺은 침으로, 그분은 인류의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몸소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맨 처음에 말씀¹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를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자,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독생자²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영광이었다.

1 말씀: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로고스'는 번역하기 힘든 단어이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주를 다스리는 신적인 원리, 신적인 마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의미로는 "논리, 이성, 의미, 언어" 등이 있다. 예수와 제자 요한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2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고, 다른 어떤 사람과 비견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인 분

한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³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⁴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마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여자여! 기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어떤 인사말인지 의아스러워 몹시 힘들어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여뵈 여기신다.
이제 들어보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⁵라고 불러라.
그분은 위대하게 되고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또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그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야곱의 집안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므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남자와 친밀하게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안을 것이다.

3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단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쁨 부으신 자 혹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 오늘날 예수는 옛 유대인의 예언(豫言)들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로서의 보편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분의 이름이 되어버렸다.

4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 중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5 예수: 이 어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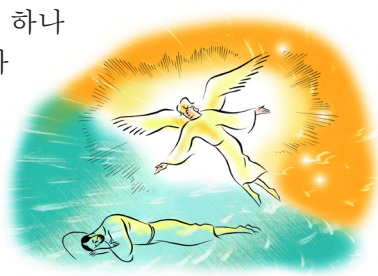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를 떠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 그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요셉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주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와 비밀리에 파혼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주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불러라. 그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어난 모든 일은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⁶이라고 부



6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르리라.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는 마리아와 결혼하였으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예수의 탄생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⁷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인구 등록을 해야 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유다 베들레헴 마을로 올라갔다.

그 이유는 그가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그와 결혼하고 임신 중인 마리아도 함께 인구 등록을 위하여 올라갔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그녀는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는 첫아들을 낳았고, 아기를 포근하게 천에 싸서 외양간 구유에 누었다. 이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7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로마 황제/시제 (30 B.C. - A.D. 14).

목자들과 천사들

그 근처 들에서 목자들이 밤새 그들의 양 떼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 하나님의 한 천사가 그들 앞에 서 있고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천사를 비추고 있었다.

이를 본 목자들은 놀랐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보아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주님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천에 포근하게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갓난아기를 너희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표가 되리라.”



그때 갑자기 큰 무리의 하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어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하였다. 그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자기들이 이 아기에 대해 들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자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신기해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속에 이 모든 일을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였다.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였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예수께서 헤롯⁸왕 때 유다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동쪽에서 동방박사⁹들이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헤롯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술렁거렸다. 그래서 헤롯은 백성들의 모든 대제사장¹⁰과 율법교사¹¹들을 소집하여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헤롯에게 말했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대언자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너 베들레헬아!

너는 유다의 땅 중에서 전혀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같이 이끌 지도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¹²

그러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별이 나타난 정확한 때를 물어보았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가서 그 아이를 조심해서 찾

8 헤롯: 이 사람은 예수 탄생시에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 유다를 다스리던 잔인한 왕으로 헤롯 대왕이라 불리었음.

9 동방박사: 천체를 관찰하고 연구하여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감지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며,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으로 봄, 아마도 메시아가 오실 때를 예견한 다니엘의 예언(豫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단9:25).

10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

11 율법교사: 모세의 율법책을 필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종종 법적인 문제들을 해석해주는 유대주의 전문가 무리. 그들은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성경학자들이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12 이 예언(例言)의 말씀은 미가서 5:2에 나옴.

아보시오. 그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리다.”

왕의 이 말을 듣고서 동방박사들은 가던 길을 갔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더니,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그 별이 멈췄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몹시 기뻐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아기를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보물함을 열어서 그 아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하여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이집트로 피난 가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후,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갑자기 나타나서 “일어나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살아라. 이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였다. 그는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리하여 대언자를 통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인데,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로부터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하였다

그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아차리고 몹시 화가 났다. 그가 동방박사들에게서 알아낸 때를 가늠하여, 베들레헴과 그 근처의 두 살 아래 모든 사내아이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¹³ 통하

13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기원전(주전, B.C.) 650-580년에 살았다.

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녀들을 향하여

심하게 애통하였다.

그녀는 그들을 더 이상 세상에서 볼 수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헤롯이 죽자, 주 하나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다. “일어나라!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이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아켈라오¹⁴가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경고받고,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에 정착하였다. 이는 대언자를 통하여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 그 소년이 자라가고 힘이 세어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성전에서의 소년 예수

해마다 예수의 부모는 유월절¹⁵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습관대로 유월절 잔치에 올라갔다. 절기가 끝나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14 아켈라오: 아켈라오는 헤롯대왕과 밀다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헤롯대왕이 그를 첫 번째 상속자로 지명함으로써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되었다.

15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연중 절기 중 하나.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에 양을 잡고 잔치한다.

있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소년 예수가 같이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때 그 부모는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찾지 못하자, 예수를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들은 성전 부속 건물에서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이들은 그의 깨달음과 대답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가 예수를 보고 놀라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하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소년 예수는 그들에게 물었다. “제가 저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그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받게 되었다.

세례자(침례자) 요한의 전도

예수께서 자신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는 30세쯤이었다.

그 무렵 세례자(침례자) 요한¹⁶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설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다.

16 세례자(침례자)요한: 유대의 최대이자 마지막 대언자.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그는 헤롯 안타파에 의해 목이 베어 순교하였다. 같은 이름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의 제자와 동일인이 아님.

요한은 그 몸에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지역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떼를 지어 몰려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침례)¹⁷를 받았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대답하길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침례)를 베풀 것이다.”

다음날 자기에게 오는 예수를 보고 요한이 말하였다. “여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예수께서 세례(침례)를 받다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로 와서 그에게 세례(침례)를 받으셨다. 그러자 요한은 그분을 말리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당신께 세례(침례)를 받아야 마땅한데, 어찌 저에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제 이것을 허락하여라.

¹⁷ 세례(침례): 세례(침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의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자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침례)를 받도록 했다.

예수께서 세례(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바로 올라왔다. 그때 예수
께서는 갑자기 하늘이 자신에게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
둘기같이 자신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늘로부
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기뻐하노라.”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그때 예수께서 성령¹⁸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 마귀¹⁹에
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40일 낮과 밤을 금식한 후
시상하셨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
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
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
라고 해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
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²⁰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가서 성전

18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심.

19 마귀: 마귀는 사탄, 귀신의 왕임.

20 오늘날 구약 성경으로 불리는 유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이다.

꼭대기에 그분을 세워놓고 말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라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서
너의 발이 바위에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이것도 기록되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자 다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그분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함을 보여주며 말
했다.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
게 주겠소.”

그러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물리가라, 사탄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즉시 천사들이 와서 예
수께 시중들었다.

하나님의 어린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있다!”

다음날 다시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서, 예수께서 지
나가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양²¹이시
다.”

21 어린양: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양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께
서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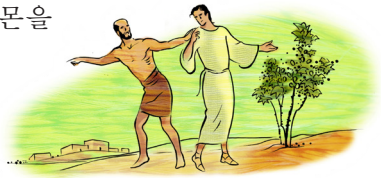
요한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답했다. “랍비님”²²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 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머무시던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때가 낮 10시경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²³를 만났다.” 그리고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더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게바²⁴라고 불리리라.”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다

다음날 갈릴리로 떠나시던 참에, 예수께서 빌립을 발견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 벳새다 출신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우리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대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라고 말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22 “선생님”이라는 뜻

23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의미

24 “게바”는 “바위”라는 뜻

빌립이 말했다. “와보면 알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조금도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쭙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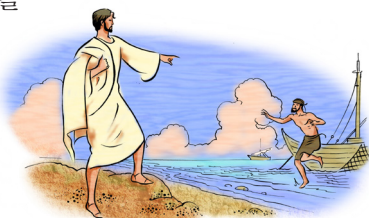
나다나엘이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했었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였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²⁵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식이 그 주변에 온통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모든 사람이 환호하였다.

어부 네 명이 예수를 따라가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이기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25 인자: 예수께서는 자주 자신을 ‘사람의 아들’의 한자(漢字) 표현인 인자(人子)라고 하였다.

만들겠다.” 그들이 바로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 계속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배 안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전도와 치유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병과 아픈 것을 고치시면서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셨다. 그러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병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 갖가지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를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 것들을 가르치셨다.

참된 복

“영이 가난한²⁶ 이들은 복되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서 우는 이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리라.
온유한 이들은 복되도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으리라.

26 영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정의에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이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 주시리라.
 자비를 베푸는 이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마음이 순수한 이들은 복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는 것이다.
 평화를 가져오는 이들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아들이라 불러 주시리라.
 정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들은 복되도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
 하고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 너희는 복되도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전에
 왔던 대언자들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박해하였다.”

너희에게 화(禍)가 있으리라

“그러나 부요한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굶주리리라.
 지금 마냥 웃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울며 슬퍼할 날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칭찬하는 방법은 저들의 조상이 거짓 대언자들
 을 다루던 수법이다.”

사랑과 자비

“그러나 나는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누가 너의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밀어라. 누가 너희 겂옷을 가져가면, 너희 속옷도 내어주어라. 너희에게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고, 너희 것을 가져가는 이들에게 되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너희가 바라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그들에게 해 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또 너희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에게에만 좋은 일을 한다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조차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되돌려 받을 줄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고스란히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죄인에게도 꾸어 준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아예 되돌려 받을 생각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인들에게도 은혜로운 분이시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땅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던져져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리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누구라도 등불을 켜서 뒷박 속에 두지 않고 등불 대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 이와 똑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너희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상급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줄 때, 위선자들이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저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에게 줄 때,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희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자선이 숨겨지게 하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위선자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길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 개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



여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우상 숭배자들처럼 와글와글 지껄이지 말아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것이라 여긴다. 저들처럼 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치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²⁷.”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

27 아멘: 이 단어는 “진실로” 혹은 “확실히” 등의 뜻이 있으며, 기도에서 자주 사용된다.

시지 않으시리라.”

하늘에 쌓아 둔 보물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이 땅에 모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 벌레가 먹고 녹이 슬어 버릴 것이요 도둑이 쳐들어와 그것을 훔쳐 간다.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두어라. 거기에는 좀 벌레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녹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쳐들어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게 마련이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에게는 헌신하고 다른 주인은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동시에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즉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저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거나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신다. 너희가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길게 할 수 있느냐?”

“왜 너희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야생화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배워라. 그것들은 노동도 안 하고

실도 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솔로몬²⁸이 그 모든 화려함으로 치장한 것이 이 들꽃 하나만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이렇게 입혀 주신다면, 너희는 훨씬 더 잘 입혀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 까?’라고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자들이 이 모든 것을 열성적으로 구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스스로 걱정할 것이다. 각 날의 고통은 그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계속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되리라. 계속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되리라. 계속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은 열리리라. 너희 중에 어떤 이가 그 아들이 있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혹은 그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께 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²⁹과 대언자들의 가르침이다.”

28 솔로몬: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은 기원전(주전, B.C.) 971-932년 동안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다. 이스라엘 태동기 동안 그의 재위 기간은 유다 역사의 황금기로 불린다.

29 율법: 예수께서 유대인의 율법들, 즉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언급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대한 특별한 계시인데, 일반적으로 모세의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로 간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서, 그리로 찾아오는 사람은 적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여라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은 약탈하는 늑대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



서 포도를 따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생산하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생산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거짓으로 믿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가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선포하리라.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자행하는 너희는 나에게서 물러가라!’”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때려도, 기초를 바위 위에 세웠으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오고 강물이 불어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때리면, 그 집은 무너진다. 아주 심하게 무너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는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율법교사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갈릴리 모든 지역을 다니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밀밭 (벤산 지역)

갈릴리 호수(디베리아 바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 4 장 35 절

제6장

경이로운 말씀; 위대한 행적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이유는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로움, 겸손함, 순결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따라오너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의로움과 사랑과 순결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돈과 물질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영광, 그리고 사랑함도 버려야 합니다. 권력과 권위로 다른 사람의 삶을 주장하려는 욕망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나섰다. 바로 그때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나아라.” 그 즉시 그의 병이 나았다.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어떤 집 안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심지어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메시지(말씀)를 전하고 계셨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환자를 들것에 뉘어서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집 지붕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들것에 누인 채 아래로 내려 보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는 그 중풍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나 거기 앉아있던 율법교사¹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왜 이같이 말하는가?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¹ 율법교사: 모세의 율법책을 필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종종 법적인 문제들을 해석해주는 유대주의 전문가 무리. 그들은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성경학자들이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저들이 마음속으로 이같이 생각하고 있는 줄을 예수께서 곧바로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가 마음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아니면 ‘너의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나 인자(人子)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그 중풍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즉시 그가 일어나, 들것을 들고 모든 사람의 앞을 지나서 걸어 나갔다. 그 결과 모든 이들이 놀라고, “우리는 평생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예루살렘과 이두매, 요단 건너편 지역, 두로와 시돈 근방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



께서 하신 모든 일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온 것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물려든 군중들에 의해 예수가 짓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를 만지려고 그 앞으로 물려들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군중이 다시 물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식사조차도 할 수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를 말리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문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렀다. 예수를 에워싸고 앉아있던 무리가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 형제들과 자매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둘러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누구나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떠나 예수께서 타신 배를 저어가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왔다. 사나운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부술 듯이 부딪혔다. 물이 배 위에 쏟아져서 배가 거의 물에 잠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선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면서 말씀드렸다. “선생님!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도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여라! 잠잠하여라!”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고요해졌다. 그러자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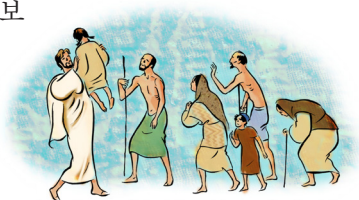
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두려워서 서로 물어보았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조차도 이분께 복종하다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치유하심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에 배를 정박시켰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금방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 군중들이 예수의 주변으로 서둘러 가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을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시장 마당에 병자를 눕혀 놓고, 예수께 그 옷깃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옷깃에만 스쳐도 모든 사람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 엄청난 군중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에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야이로라는 한 회당 지도자가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계속 간청하였다. “저의 딸이 죽기 직전입니다. 오셔서 당신의 손을 딸에게 얹어 병에서 나아 살게 해주십시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치고 있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가서 고치려 했

지만, 도리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버리고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예수께서 오신



다는 소문을 들은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예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깃을 만졌다. 그녀는 혼자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야.” 그 순간 그녀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다. 그때 그녀는 자기 몸에서 이것을 느꼈고, 자기를 괴롭히던 병에서 치료되었음을 알았다.

그 즉시 예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다. 예수께서 군중 속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는가?”

그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선생님을 밀쳐대는 군중들을 보십시오. 이래도 선생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아시려고 둘러보고 계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리고 너의 고통에서 해방되거라.”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났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다. “파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을 이들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크게 울고 있는 소동을 예수께서는 보셨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왜들 이렇게 울고 소란을 피우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비웃기 시작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밖에 있으라고 하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굶!” 즉,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12살이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명하시고 그 여자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천국과 지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라라.”

“이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올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 오리라.”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

니, 그 천사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불법의 죄를 짓는 자들을 인자의 나라에서 거둬들여,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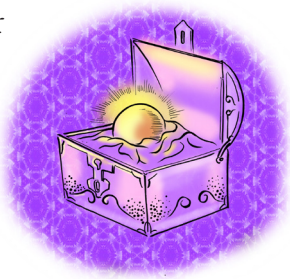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들어야 한다!”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다시 밭에 묻어둔 보물상자와 같다. 그는 기뻐하면서 얼른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아주 값나가는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놓은 커다란 그물과 같다. 온갖 물고기들이 그물에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다가 해변에 놓



고 앉아서 좋은 고기들은 모아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것은 밖으로 던져버린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천사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어 불이 활활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그들은 울며 이를 갈리라.”

부자 청년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께 여쭙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너는 계명²들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청년은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에 망연자실하여 근심하면서 떠나 버렸다.

2 계명: 하나님의 법, 말씀, 교훈, 명령을 의미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라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 놀라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확실하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땅을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집이나 형제자매나 어머니나 자녀나 땅을 뿔박과 함께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먼저 되었던 많은 자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 되었던 자가 먼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고 계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들어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³에게 인자를 넘겨주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끝내는 인자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숨겨진 것이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연약함을 치유하게 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치밀하고 비둘기같이 악의가 없어야 한다. 너희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조심하여라.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는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할 말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3 이방인: 예수는 로마인들을 이방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다. 이 단어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암시한다.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여 죽게 만들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하리라. 자녀들도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들이 한 마을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마을로 피신하라.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그 중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숫자까지도 이미 다 세어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모든 자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누구라도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평화가 아니라 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



라 칼을 주러 왔다.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나는 왔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그의 집안 식구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⁴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나 때문에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예수를 환영한 사람이 받을 상급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대언자를 대언자로 환영하는 사람은 대언자의 상을 받으리라.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환영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의 상을 받으리라. 내 제자인 여기 있는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내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대체로 세례자(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만, 엘리야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옛 대언자 중 하나가 왔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4 십자가: 예수의 시대에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처형장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격히 경고하면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삼 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서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 목숨을 얻기를 바라는 자마다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 때문에 버리기를 원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망해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린이들과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축복하시며 만져 주시기를 바랐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나무랐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도록 하고 그들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을 품에 안은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셨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에 갔다.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많은 군중이 따라가고 있었다. 바디메오(디메오의 아들)라는 시각장애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었다.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더더욱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서 그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어라!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 시각장애인은 겹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시각장애인은 예수께 대답했다. “나의 선생님이시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는 볼 수 있게 되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예수와 니고데모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께서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 영은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너는 그 소리는 들어도 그 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자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질문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것들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보았던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는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보내신 것이다. 그를 믿은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판이다.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에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빛을 미워하여 그 빛을 피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자마다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기의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시면서 세례(침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침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여, 당신께서 증인으로 증명하던 분, 당신과 함께 요단 건너편에 있던 분이 세례(침례)를 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야말로 내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졌을 뿐이다’라고 말한 대로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분은 더욱 커져야만 하고, 나는 작아져야만 한다.”



“위로부터 오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땅으로부터 세상에 나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으로 증언하지만,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으나, 아들을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사람 위에 머물고 있다.”



예수께서 유다 지방에서 세례(침례)를 베푸셨다.

요한복음 3장 22절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유대 광야

제7장

배척당하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만약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저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하리라. 나 때문에 저들이 너희를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는 나를 보낸 분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장소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고 인내하며 하늘나라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예수는 또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사람의 전통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 몇 사람이 예수께 왔다가, 그들이 예수의 제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목격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거의 모든 유대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 그들의 손을 의식에 따라 씻지 않고서는 빵을 먹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많은 관습이 있었는데, 잔, 단지, 돛그릇, 식탁, 의자 등을 씻는 일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께 질문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언하였다. 기록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마는,
이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사람의 명령을 하나님의 교훈인 양 가르치는구나.”

사람을 더럽히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하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를 더럽게 한다. 너희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한다!”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예수께 질문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모든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를 더럽힌다. 속으로부터 곧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한 행동,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속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와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을 따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운반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지만, 자기들은 이 짐들을 옮기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 그들은 성구 넣는 지갑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며, 그들의 옷에 다는 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들은 연회에서 맨 윗자리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앞자리와 높은 자리를 찾으며 시장에서는 인사 받기를 즐기고 사람들로 부터는 ‘선생’과 ‘랍비’라 불리길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불리지 말아라. 너희는 한 분의 스승을 모시고 있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니라.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아버지¹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느니라. 너희는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너희는 한 분의 지도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너희 중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기 자신을 낮추려는 사람마다 높아지리라.”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그러나 위선자들아! 율법교사²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고 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켜버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긴 기도를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땅과 바다를 다니면서 한 사람을 개종 시켜서는 두 배나 더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

1 아버지: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뜻함.

2 율법교사: 모세의 율법책을 필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종종 법적인 문제들을 해석해주는 유대주의 전문가 무리. 그들은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성경학자들이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와 사람들아! 먼저 그 잔의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와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대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단장하면서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 대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후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너희 조상 죄의 분량을 마저 채우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내가 대언자와 지혜자, 율법교사들을 보내는 이유이다.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매질하고, 더러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사냥하듯 추격하였다.”

예수를 제거할 음모

그때 바리새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것으로 그분에게 올가미를 씌울 음모를 꾸몄다.

그중에서 법에 정통한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였다.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큼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다. ‘네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말씀)이다.”

이 때, 수천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의 위선을 조심해야 한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 버릴까 모의하였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를 떠나셨다. 많은 사람이 뒤따라왔고,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를 남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하여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 여기 있다.
나의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리니,
그가 열방에 공의를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꺾버리지 않으리라.
마침내 그는 공의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
이방 나라들이 그분의 이름에
소망을 두게 되리라.”

부자와 가난한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전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매일 연회를 베풀며 호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그 부자의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내버려져 있었다. 이 거지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애타게 구걸하였지만, 오히려 개들이 다가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먹었다. 어느 날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중에 저 멀리 위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그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었다. 그러자 그는 소리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으로 물을 짖어 저의 혀를 식혀주세요. 제가 이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너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 좋은 것은 다 누렸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사로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어 여기서 거기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구나. 거기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했다. “아버지, 그러면 비노니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어 저의 형제 다섯에게 말해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이가 부활하여 간다고 해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금징수원

예수께서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모두 업신여기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금징수원³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맨 앞에서 고개를 하늘로 향해 똑

바로 들고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

다. ‘하나님, 제가 탐욕스러운 자도 아니고, 불의한 자도 아니며, 간음하는 자도 아니고, 심지어 이 세금징수원 같은 자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⁴합니다. 제가 얻게 된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세금징수원은 저 뒤에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의 진노하심을 이 죄인에게서 거두어 주세요!”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세금징수원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

3 세금징수원: 로마 정부가 임명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배신자) 혹은 죄인으로 여겨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혐오스러운 외국인인 로마의 제국주의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앞잡이일 뿐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실제 책정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금식: 금식은 일정 기간 음식을 금하는 것인데, 보통 종교적인 목적으로 행한다.

를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마다 높아지기 마련이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 중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무거운 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 동생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이는 예수의 동생들이라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시간은 항상 와 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지만, 나를 미워한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명해 말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절기에 올라가라. 내 시간이 완전히 오지 않았기에, 나는 이 절기에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간 갈릴리에 그냥 머물고 계셨다.

유대인의 절기에 나타나신 예수

예수의 형제들이 그 절기에 올라간 이후, 예수께서도 사 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모르게 올라가셨다. 그 절기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서로 말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 군중들 가운데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은 좋은 사람ियो.”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아니오. 그는 백성들을 속이고 있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절기가 절반쯤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서 말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지?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외쳤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보는 것



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은 나를 믿는 자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바로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명령하신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이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예루살렘 사람 중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저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이분인가? 하지만 보아라!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 하지 않는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당국은 알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누구이며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이는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였다. “메시아가 와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분명히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기에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중 사이에서 예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지도자들의 불신앙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라고 성전 경찰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전 경찰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자, 그들이 “왜



그를 잡아 오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었다.

성전 경찰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마저 속아 넘어갔느냐? 우리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가 그를 믿고 있느냐? 또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누가 믿고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따위 군중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은밀히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였다. “도대체 우리의 율법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행한 일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대답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을 찾아볼 수 없을 거요.”

세상 종말의 징조들

예수께서 그 자리를 떠나 성전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성전 건물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말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여쭙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 날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



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해 주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경계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너희는 전쟁 소식과 전쟁 소문을 듣게 되리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겠고, 왕국이 왕국을 대항하여 일어난다. 여러 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이 모든 사건은 해산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박해하고, 또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서로를 공격하고 배반하고 미워하리라. 또한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게 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때에야 종말(끝)이 오리라.”

극심한 고난

“그때는 환난의 날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도 없었고, 그리고 다시없을 그런 시련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 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아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라고 하여도 믿지 말아라. 많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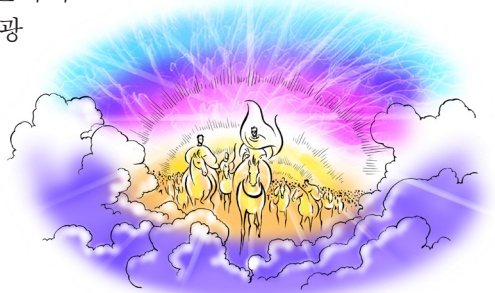
짓 메시아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을 받은 백성을 속이려고 할 것이다. 내가 미리 이 모든 것을 말하였으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그러나 그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요동치리라.”

사람의 아들(인자)의 두 번째 오심

“그 후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 속에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심을 볼 것이다.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망에
서 그의 택한 백성을
모으리라.”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나의 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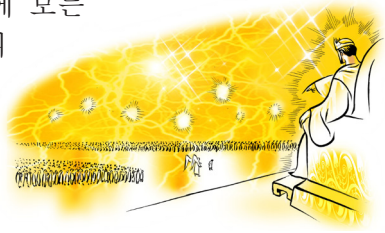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노아의 시절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도 바로 그럴 것이다. 대홍수 전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도와 똑같다.”

그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분 앞에 집결할 터인데, 그분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저들을 갈라놓으시리라. 그분



은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그때 그 왕께서 자기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집안으로 맞아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면회해 주었다.”

그러자 그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께 말씀드릴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시장하셨을 때에 음식을 드렸으며, 목마르셨을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당신께서 나그네 되셨을 때에 집안으로 맞아드렸으며,

옷이 없었을 때에 옷을 입혀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당신
께서 아프셨을 때나 감옥에 계셨을 때에 당신을 면회하였
나이까?’

그러자 그 왕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확실히 말한다. 나
의 이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은
무엇이나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서 그분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
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라!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나를 집안으로 맞아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프고 감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주지 않았다.’

그러면 저들도 말할 것이다.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
께서 시당하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
시거나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실 때 뵈고 돌보지 않았습니
까?’

그러자 그분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확실히 말
한다. 너희가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들은 영원한 형벌로 쫓겨가고, 의로운 사람들

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고향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남자가 병이 들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그분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린 자매이고, 병이 난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예수께서 도착하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웠다(약 3.2km의 거리).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오빠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만나 뵈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말씀드렸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녀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당신께서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일어나 주님께로 갔다. 예수께서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만나 보였던 곳에 여전히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며 집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울려고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왔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엎드려서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는 것을 보자,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이곳으로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는 바위로 닫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위를 치워라.”

죽은 사람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는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바위를 옮겼다. 그러자 예수께서 위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시는 줄 저는 압니다. 하오나 여기 서 있는 군중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줄을 믿도록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데, 손과 발이 베로 감겨 있고 얼굴이 천으로 덮여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주어서 다니게 하여라.”

예수를 죽일 음모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들 중 몇 명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산헤드린)⁵를 소집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도록 그냥 놓아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나라를 빼앗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미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으면서 서로 질문하였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이번 명절에 올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하였다.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오셨다.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마련하였다. 마르다는 시중들고 나사로는 식탁에 예수와 함께 손님들 가운데 앉아있었다.

5 공의회(산헤드린): 로마 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대 나라의 합법적인 통치관으로 대법원 혹은 국회와 같은 기관이며 로마에 대하여는 굴종적이고 권세는 제한적이었다. 제사장, 장로, 율법교사 등 유대의 종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출신 70명으로 구성되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이 의회의장이 되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 알게 되어 무리를 지어 거기로 왔는데, 예수 때문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려 내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그들을 떠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다음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명절에 올라온 많은 군중이 듣고서,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계속하여 소리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찬양받으소서!”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대로였다.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이 일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미 기록된 것이어서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음에서 살려 내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가 계속하여 그 일을 증언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자, 보시오.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일 묘안을 찾고 있었다.



그때 사탄이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그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찰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중들 몰래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좋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배척당하셨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 함이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혹은 자신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예수에 대하여 한 말이다.

유대 지도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드러내 놓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다. 이는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다.

올리브 산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메시아요...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리라.”
이사야 42장 7절



비아 돌로로사. (Via Dolorosa,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장을 향하여 가셨던 길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20절



제8장 인류의 죄를 위하여

왕 중의 왕이며 주(主) 중의 주(主)이신 분에게 침을 뱉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그분의 머리에 찌르듯이 눌러 씌우고, 그분의 옷을 벗겨 십자가에 손발을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못으로 뚫렸고, 뼈들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서 몸을 비틀었고 얼굴과 손과 발에서 피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살고, 그분께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겨졌기에 우리가 치유되었습니다.

이 처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은 이 길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이 길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최후의 만찬

유월절 양을 잡는 절기인 무교절¹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도록 준비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중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시내로 들어가면 물둥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손님 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잘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 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의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시내에 들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이 온 줄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들이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함께 먹고 있는 너희 중의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1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한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인들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은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건너뛰어 갔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절기 동안 유대인들은 어린양을 잡고 구워서 그 고기를 무교병(빵)과 함께 먹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절기에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희생양으로 여긴다. 이는 예수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제자들은 당황하여 예수께 한 사람씩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분명히 아니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나와 함께 그릇에 빵을 담고 있는 열두 사람 중 하나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자는 비참하게 된다!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하였다. 그때 제자 중의 한 사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분의 곁에 가까이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손짓하여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께 기댄 채로 여쭙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빵조각을 그릇에 담갔다가 주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빵을 담갔다가 그것을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즉시 그 방을 나가버렸다. 그때는 밤이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며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자, 그들이 모두 그것을 마셨다.

“너희 마음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다. 그렇

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도마가 말했다.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려는지를 모르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빌립이 말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너는 모르느냐?”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할 터인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保惠師)²⁾’를 보내 주셔서 너희와 영원

2 보혜사: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Paracletos), 영어로는 카운슬러(Counselor)인데 의미는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로 해석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다. 이러한 뜻을 담은 한 자어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이다.

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에, 그분을 영접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들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우리의 집을 만들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아직도 너희에게 말해 줄 것이 많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그분이 들은 것만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또한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선포하시리라.”



세상의 증오와 박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같이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여 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기억하여라. ‘중은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그들이 너희들도 역시 박해하리라. 그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역시 지키리라. 그러나 저들이 나의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저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한다. 저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이 일들을 목격하고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율법책³에 기록된 ‘저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⁴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시다

그들은 시편을 노래한 후에 올리브 산으로 나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도망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³ 율법책: 율법책이라 함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⁴ 여기서는 시편 69편 4절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모두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바로 이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주장하였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다

예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있어서 예수와 제자들이 그리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자주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내 준 병사와 성전 경찰 일행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닥쳤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유다가 가까이 가서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손을 뻗어 그의 칼을 빼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베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군단보다도 더 많은 천사를 당장 보내 주실 수 있게 하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종의 귀를 만져 치료해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과 곤봉을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 건물에 앉아서 가르쳤을 때도 너희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의 예언(豫言)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때 모든 제자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산헤드린에서의 심문

예수를 체포한 자들은 그분을 율법 교사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고 갔다. 그사이에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갔다. 베드로는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기 위하여 성전 경찰들과 같이 앉아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⁵ 회원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거짓 증언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드디어 두 증인이 나와서 진술하였다. “이 사람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반론이 없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계속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너를 두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우리에게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분명히 대답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장차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어찌 우리가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보시오! 방금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때 저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어떤 자들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하길, “메시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 맞춰봐라.”라고 하였다.

5 산헤드린: 이 공의회는 유대 정부의 최고기관으로 유대법을 어긴 자에게 심지어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사형집행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였다

그동안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있었다. 그때 여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늘 함께 다녔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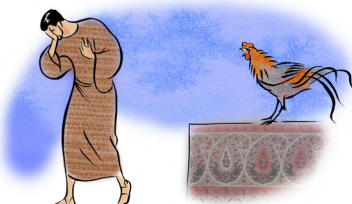


베드로가 대문 쪽으로 나가자 또 다른 여자가 그를 보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그러자 그는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잠시 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 저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그걸 알겠소.”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코 부인하였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마침 그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다. “오늘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심

날이 밝아오자,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두 작당하여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짰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한 다음, 끌고 가서 빌라도⁶ 총독에게 넘겼다.

그러자 빌라도가 나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을 따라 그를 처리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를 안으로 불러 들여 말하였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자기 생각으로 나에게 묻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서 듣고 말하는 거요?”

빌라도가 대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잖소.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요. 이렇듯 나의 나라는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6 빌라도: 주후(A.D.) 26-36년 동안의 유대의 로마 총독, 사형 연도는 그의 승인이나 부인에 달려 있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진리로부터 온 사람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그리고 빌라도는 부하들에게 예수를 데리고 나가 매질하도록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기도 하고 자홍색 용포를 입혀 보기도 하였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을 수 없으니, 내가 그를 밖으로 데려와 당신들에게 인계할 것이요.”

빌라도가 예수를 구하려고 시도하였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그 의로운 분께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꿈에 그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용포를 걸치시고 나오셨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찰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전보다 더 두려워하였다. 그는 관저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께 질문하였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석방할 수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모른다 말이지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위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나에게 대해 어떤 권한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할 것이요.”

이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쳤다. “만약 당신이 그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의 적입니다!”

사형선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밖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빌라도가 ‘리토스토론’⁷이라고 불리는 재판석에 앉았

7 리토스토론: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다.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안식일 전날)이었고 시간은 아침 6시경이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여기에 너희 왕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더 이상 방도가 없으며 오히려 민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합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모든 사람이 대답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 처형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을 향하여 가셨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



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와 양편에 다른 두 사람도 같이 처형했다.

빌라도가 글로 쓴 명패를 만들어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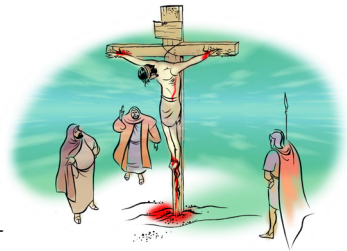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시내에서 가까웠고, 명패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이 글을 읽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주십시오.”

빌라도는 대답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어 놓고 제비를 뽑았다.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하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분!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이나 구해 보시지!” 이와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도 서로서

로 예수를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는 다른 이들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렇게 하면 믿어주겠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예수를 비웃고 있었다.



병사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다. 그들은 신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말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십자가에 달린 도둑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중 한 명이 예수를 멸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그러자 다른 죄수가 그를 책망하며 말했다. “당신은 같은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렵지 않은가?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의 죽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다. 오후 3시경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서 있던 사람 중 몇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다시 외치셨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갑자기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졌다. 또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예수를 지키는 백부장⁸과 군사들이 지진과 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를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섬겼던 여자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데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예수의 매장

그날은 이미 저물었고, 예비일(안식일의 하루 전 날)이었다. 산헤드린의 명망 있는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용감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운명하신 것을 듣고 놀랐다.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미 숨을 거두었는지 물어보았다. 빌라도가 백부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요셉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이

예수를 내려다가
미리 가져온 고
운 베옷으로
쌌다. 바위를
꺾아서 만든
무덤에 예수
의 시신을 안



치하고 돌을 굴려 그 무덤 입구를 막았다. 그때 막달라 출

⁸ 백부장: 부하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군대의 지휘관.

신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자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인봉한 무덤과 로마 경비병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함께 나가서 말하였다. “총독님, 이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내리셔서 그의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훔쳐 가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는 경비병들이 있다.” “가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잘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무덤을 돌로 봉인하고 경비를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34절



고대 이스라엘 무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5절

산상수훈의 언덕 (갈릴리 호수 옆)



제9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영광과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무시하지만, 극히 무지하지만 앎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도 이 놀라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계사의 중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하고 있고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에 속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덮고 있는 두려운 죽음의 저주에 대한 강력하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온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소망, 다른 승리는 전혀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안식일 후, 그 주간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피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무덤으로 다가갔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용모는 번개처럼 빛났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심하게 떨다가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리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알려라! 실은 그분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뵈게 되리라. 들어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여자들이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천사가 물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아라. 그분은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두렵지만 크게 기뻐하며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향하여 오셔서 말씀하셨다. “평안하느냐!” 그 여자들이 가까이 가서 예수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여라.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보게 되리라.”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열한 제자와 그 외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 얘기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말 같아서, 그들은 여자들을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가 구푸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삼베 천만 보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놀라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경비병들과 유대 제사장들

여자들이 떠나간 뒤 경비병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회합한 후에 한 가지 묘책을 마련하였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말하였다. “이렇게 소문을 내어라. ‘그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든 사이, 밤에 그의 시체를 훔쳐 갔다.’ 이 사실이 총독의 귀에까지 들어가도 우리가 해결하고 너희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 그러자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유대 백성 가운데 퍼져 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바로 그날 함께 있던 이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며 가고 있었다. 그들이 토론에 열중하는 사이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계속 서로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멈춰 서서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둘 중의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이가 예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 중에서 당신만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분으로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의 시체는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한 천사들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어떤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았는데, 여자

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그들도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언자들이 말했던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기를 더디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해석하여 주셨다.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오게 되자,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강권하였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와 함께 유숙하시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머무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집어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으나,



예수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열한 제자와 또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주께서 분명히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예수께서 빵을 떼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알려 주셨는지를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계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자기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왜들 그렇게 안절부절못하고 있느냐?” 예수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

들 마음에 의심하고 있느냐? 나의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이 말



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믿을 수가 없어서 어안이 병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 먹을 것 좀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그것을 받아 잡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도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평안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또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

그러나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도마(“쌍둥이”로 불림)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거기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계속 말했다. “우리는 주님을 뵈었다네!”

그러나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 손의 못 자국을 보고 그 못 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또 주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네!”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평안하여라!”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내 손에 넣어 보고 자세히 보아라. 네 손을 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
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살아계신 자기의 모습을 여러 확실한 증거로 보여 주셨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침례)를 받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마다 정죄를 받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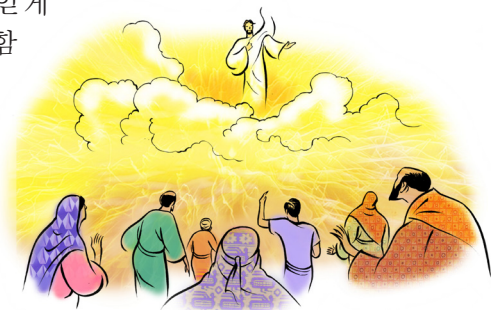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서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는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에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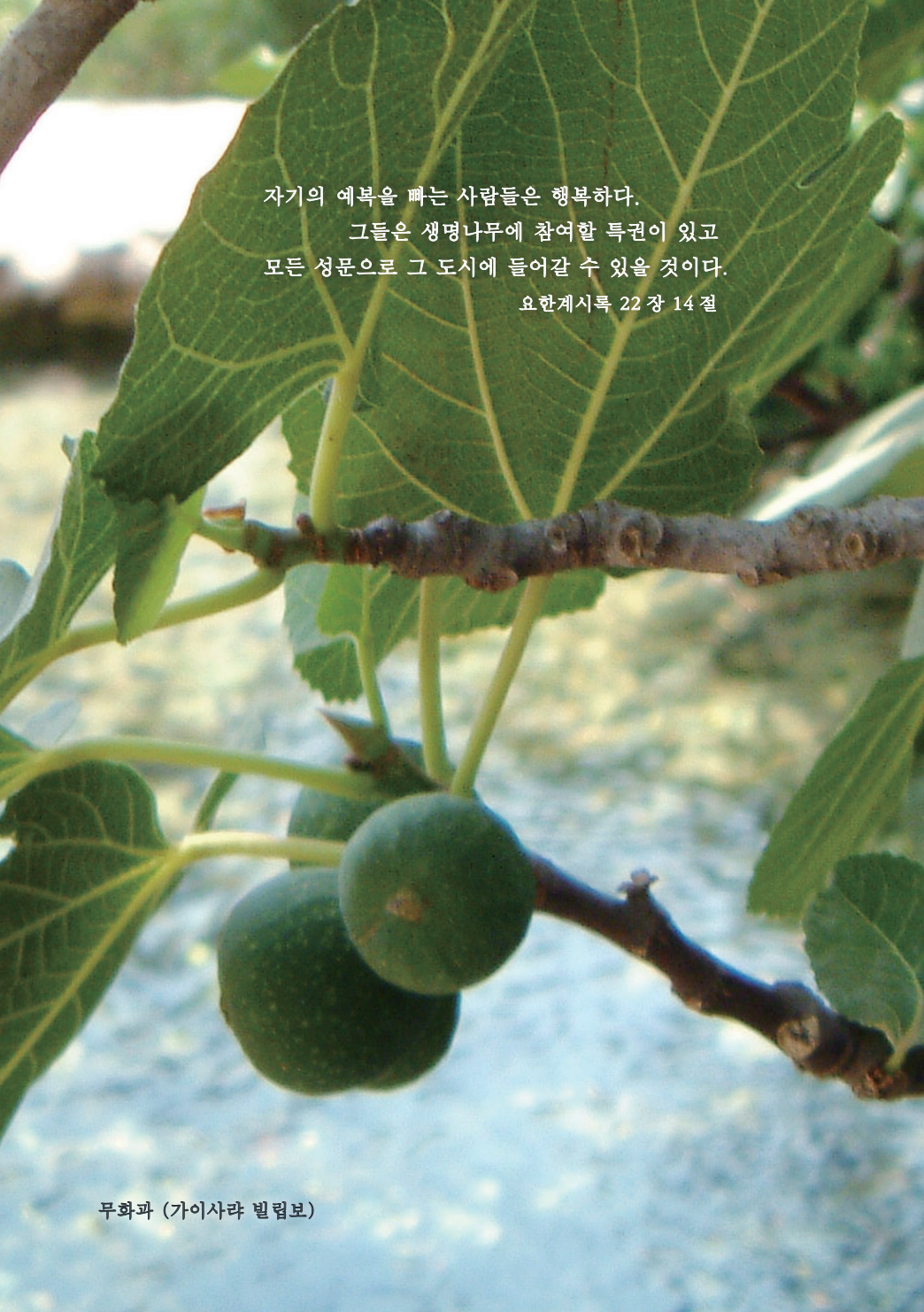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동안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는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떨어진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가서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을 행하여 주셔서 전해진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지만, 이 책에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예복을 뺀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할 특권이 있고
모든 성문으로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 장 14 절

제10장 때가 가깝다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포박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지중해의 밧모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통하여, 훗날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이고 알려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더 이상 고난과 슬픔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예수께서 주신 계시¹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자기 중 요한에게 보내어 이 계시를 알려 주셨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증언하였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어 주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행복하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리라.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그분을 찢른 자도 보리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울부짖으리라.

꼭 그렇게 되리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지금도 있으며, 이전에도 늘 있었고, 앞으로 올 자, 곧 전능자이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또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의 동반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

1 계시: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이나 진리를 신(神)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전달받는 것을 총칭하며, 하나님이나 신(神)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직간접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한 증언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 내가 주님의 날²에 영(靈) 안³에 있었는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다. 내가 몸을 돌려서 보니, 일곱 금 등대가 보였다. 그 등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 같은 한 분이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서 계셨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이나 눈 같이 희었으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단련된 놋쇠 같고, 그분의 음성은 폭포수 소리와 같았다. 그분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다.

내가 그분을 뵈자,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그분은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내가 죽었었다. 그러나 보아라! 나는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지옥⁴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이후에 될 일을 기록하여라.”

2 주님의 날: 일요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3 영(靈) 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려서 그분이 보이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듣는 상태이다.

4 지옥: 혹은 ‘하데스’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의 해를 입지 않으리라.”



“이처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 오히려 나의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하리라.”

“아멘이며, 충성스럽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너는 말한다. 그런데 너는 네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훈육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여라. 들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승리하고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특권을 주리라.”

“귀가 있는 자는 누구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라.”

하늘의 보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에게 나팔 소리처럼 말씀하시던 음성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 일 후에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을 네게 보여 주리라.”

즉시 나는 영(靈) 안에 있게 되었다. 보라!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었다.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분은 벽옥과 홍옥 같이 보였고 비취 같은 무지개가 보좌에 둥글게 떠 있었다. 그 보좌 주위로 24 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갯불과 음성과 천둥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리어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 드리며, 그 보좌 앞에 자기들의 관을 벗어 던지면서 말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뜻으로 이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다

그때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다.
태양은 염소 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

달은 온통 핏빛이 되었다. 하늘의 별들은 거센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갈라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섬과 산이 없었다.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군대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가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틈에 숨었다. 그리고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리고 어린양의 진노를 피하게 해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구나! 그러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흰 옷 입은 거대한 무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언어에서 온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방대한 군중이 보좌와 어린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흰 예복을 입었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주십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4 생물을 둘러서서 있다

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능력과
힘이 영원무궁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그때 장로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이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온 걸까요?”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당신께서 잘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들은 극심한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을 낮과 밤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중앙에 계신 어린 양께서
이 사람들을 돌보시니,
이들을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각 천사에게 나팔을 주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그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퍼부어졌다. 그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렸다. 또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들이 타버렸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불타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쏟아졌다. 그래서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물 삼분의 일이 죽고, 바다의 배 삼분의 일이 파괴되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햇불처럼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별은 강과 물 샘의 삼분의 일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약썩’이었다. 물의 삼분의 일이 약썩처럼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다. 그 물은 매우 썩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태양의 삼분의 일, 달의 삼분의 일,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졌고, 낮의 삼분의 일도 빛이 없어서 어두워졌고, 밤도 그와 같이 되었다.

그때 독수리가 중간 하늘에 떠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들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에 살아있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나머지 세 천사가 불게 될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나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렁이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렁이를 여니, 거기서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가 올라와 태양과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했다.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고,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사는 전갈들과 같은 힘이 있었다.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녹색 식물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받지 못한 사람들만을 해치라고 명령을 받았으나,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되고 다만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것이었다.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주는 고통과 같았다. 그 다섯 달 동안에는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이다.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두 가지 재앙이 더 다가오고 있다.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황금 제단의 네 개의 뿔에서부터 나팔을 가지고 있는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내게 들렸다.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라.” 그러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정해진 년, 월, 일, 시에 인류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거느린 기마병의 숫자는 2억이나 되었다. 환상으로 내가 본 말들과 기마병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그들은 불타는 붉은색, 보라색, 유향색의 가슴 방패를 붙이고 있었다. 말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왔다. 말들이 뿜어대는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었다. 말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서 나왔는데, 꼬리는 뱀과 같이 머리가 달려서 그것으로 사람을 해쳤다.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도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귀신과 금, 은, 구리,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는 구름에 싸여 있었고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으며, 그 천사의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타는 기둥 같았는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 펴진 채로 들려 있었다. 그는 자기의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육지를 딛고 서 있었다.

내가 보았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을 두고서 맹세하였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

님의 숨은 계획이 그분의 종인 대언자들에게 선포한 대로 성취될 것이다.”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렸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앞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권능을
펼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얻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고, 하나
님의 종인 거룩한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파괴한 자들을 멸할 때가 왔습니다.”

최후의 심판

그때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그 어
디에도 없었다. 또 나는, 죽은 자들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보좌 앞에 서 있는 것과 펼쳐져
있는 책들을 보았다.
다른 책도 펼쳐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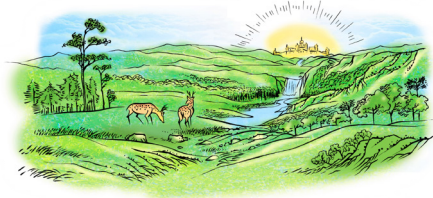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

그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들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니, 그들이 모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이다.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라도 불바다에 던져졌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마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았다.



그때 나는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다.

“보아라!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사망이 더 이상 없으리니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더 이상
없으리라.
이전 것들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였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그분은 또 말씀하셨다.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성취되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선물로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임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비겁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한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가 받을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뿐이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새 예루살렘

그때 마지막 일곱 가지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 주겠다.” 그리고 그는 영(靈) 안에 있는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싸여 있어서 그 광채가 아주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 그 도시는 거대하고 높은 성벽과 열두 대문이 있었다. 그 열두 대문 앞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고, 그 대문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인데, 각각의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도시의 넓은 거리는 투명한 유리처럼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도시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었다. 그 도시는 그 위에 비추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그 빛으로 걸어 들어오고 이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오리라. 그 성문들은 매일 언제라도 닫히지 않는데,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영예를 가지고 그 도시로 올 것이다. 불경한 것은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악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생명수의 강

그때 천사가 나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다. 그 강은 수정같이 반짝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도시의 대로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의 좌우 편에는 달마다 한가지씩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없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시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밤이 없고 사람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리라.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그리고 대언자들에게 주신 영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분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을 보여 주신 것이다.”

때가 가깝다

“보아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나 요한은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이다. 내가 이것들을 듣고 보았을 때,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나에게 말하였다. “그러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나 당신의 형제 대언자들과 그리고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종일 뿐이요.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 천사는 또 나에게 말했다.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시오. 때가 가깝기 때문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시오.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의롭게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게는 줄 상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자기의 예복을 깨끗이 빠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특권이 있고,

성문들을 통하여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들과 주술가들과 음란한 자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성문 밖에 남아있게 되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너에게 이 모든 일들을 전하라고
나의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 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였다.
“오너라!” 듣는 자는 누구라도
“오너라!”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도 와야 한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수를 선물로 받으리라.

나는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무엇이랴도 더하는 사람에게는 누
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
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에 있는 말씀 중에서
무엇이나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
와 거룩한 도시에서 그의 몫을 삭제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속
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기원
하노라! 아멘.

“아! 죄인 된 나라여,
불의에 찌든 백성이여,
어찌하여 너희들은 매를 더 벌고 있느냐?
어찌하여 줄곧 반역만 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1장 4-5절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그 안의 모든 구성체는 타서 녹아 없어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것들도 없어지리라.”

베드로후서 3 장 10 절

킬라우에 화산(하와이)



제11장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소망

서기(주후, A.D.) 1세기 후반부 동안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예수의 메시지(“복음” 혹은 “좋은소식”이라고 부름)를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편지들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21개의 편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은 이 편지들의 말씀에서 뽑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들에서 뽑은 말씀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쓰는 나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와 함께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불리일으켜서, 이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과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우리 주 구세주의 명령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면서 조롱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¹ 이후, 맨 처음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에서 나와 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무시합니다. 옛적의 세계는 홍수에 잠겨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이 그대로 남아있으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그분의 약속을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기에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¹ 잠들다: 이 용어는 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큰소리를 내며 떠나가 버리고 그 구성 요소들은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또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일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오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구성 요소들도 그 열에 녹아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는 우리는 의로움만이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이러한 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화평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분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해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생각하십시오.

바울의 편지에서 뽑은 말씀들

우리의 영원한 소망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다가 잠든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호령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징벌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이 오는 것같이 올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갑자기 멸망이 저들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해산할 여인에게 닥칠 진통과 같아서 저들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로 응징하실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하는 벌을 받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될 일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온 것처럼 속이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에게도 어떤 모양으로도 여러분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²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이나 경배의 대상을 대항하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공공연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것들에 대하여 말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그 불법의 사람은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는데, 그의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법의 비밀은 작동하고 있고, 그 불법의 사람이 풀려날 때까지만 그 힘이 붙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 입의 기운으로 그자를 멸하실 것이며 그분이 오실 때의 밝음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남은 각종 거짓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과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 받을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사탄에게 기반을 둡니다. 이 멸망 받을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2 불법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 사람은 세상의 종말 직전에 온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통합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豫言)하고 있다.

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심한 혼미함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두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이 도둑같이 여러분을 덮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따라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으로 돌아옵니까?” 어

리석은 질문입니다! 심은 씨가

죽지 않고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몸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밀이나 다른

곡식이든 그 낱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씨에게 각각 고유의 몸을 주

십니다. 모든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가 다르고,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



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의 몸이 다르고, 땅의 몸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몸의 영광과 땅의 몸의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도 서로가 다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에 빠져 있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옷
 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
 다.
 이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옷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사망을 삼켜 버리리라!
 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닌 줄 알기에,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유다의 편지에서 뽑은 말씀

거짓 그리스도인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며 단지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거품처럼 뱉어 올리는 바다의 거친 파도와도 같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별과도 같습니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대언을 하였습니다.

“보아라! 주께서 천만의
거룩한 이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저들이 사악하게 행한
모든 사악한 행위와
모든 사악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역하며 내뱉은
모든 악한 일들을
남김없이 다스려 심판하시리라!”

이러한 자들은 언제나 불평을 늘어놓고 투덜대며 자기네 욕심대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자들은 입으로는 큰소리를 치다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설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 뽑은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리라

그러나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며, 무절제하며, 난폭

하며,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종교의 행태는 있으나 신앙의 능력은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피하기 바랍니다!

인내하기를 배우라

그러나 디모데, 그대는 나의 가르침, 행실, 의향, 믿음, 인내,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을 본받아왔습니다. 또한 그대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두스드라에서 나에게 닦쳤던 박해와 고난도 함께 겪었습니다. 내가 견뎌냈던 박해들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사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고 있는 진리를 지켜나가십시오. 그대가 누구에게서 그 진리를 배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써 그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게네사렛) 영경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 장 23 절



에티오피아의 난민 캠프



제12장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다음과 같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와 종교 선생들은 현재 세상 또는 미래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는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자신들을 훈련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 교훈이나 훈련으로 죄인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훈련으로는 죄인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절망적으로 나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한 따라가기를 원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전적인 타락과 절망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인간의 대표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배척과 조롱을 당하면서, 인간의 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 된 인간이 되셔서, 인

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 즉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죄악의 인간을 의롭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각이 이런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靈)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소원과 능력을 지닌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며, 본 장의 주제이고, 예수의 제자 바울의 글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기록된 구약 말씀과도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¹.”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²(말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전문가의 식견을 제쳐 놓을 것이다.”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논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은 전도³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함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

1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2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좋은 소식.

3 전도: ‘메시지(말씀) 선포’로 번역하기로 한다.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를 벌하시려고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즉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져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의 생각이 미련하여져서 감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주장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새, 짐승과 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욕정을 따라 자기들끼리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성적인 더러움에 빠져 있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 하나님 대신 창조된 것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인류의 타락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도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비정상적인 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이 여성과의 정상적인 성행위 대신 다른 남자들

을 향한 욕정의 불길을 태웠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들은 스스로 이 망측한 짓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모실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불의, 악, 탐욕,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의에 폭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군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자만하고, 악을 조장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분별력도, 인자함도, 온정도, 자비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선고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자기들만 그런 것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당신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심판관인 당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에 당신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에 기초하여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아!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을 회개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러나 당신은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할 생각도 없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에 당신에게 쏟아질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한 이들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순종하고 불의를 따라가던 자들에게는 진노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다음은 이방인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찾아올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함께 빠져들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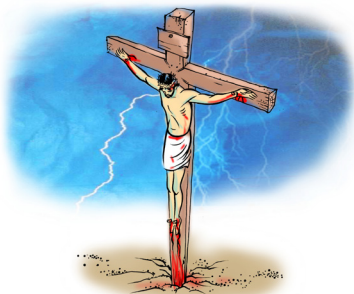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저들의 혀는 속임수를 말한다.
 저들의 입술 뒤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 있다.
 저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재빠르고,
 파괴와 비참함이 저들이 지나간 길마다 남아있고,
 저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한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
 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가 계시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 어지는 하나님의 의인데,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출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 롭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
 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의 시은소
⁴(施恩所: 은혜를 받는 장소)로
 세우셨고, 그것은 지은 죄를
 간과하는 관용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
 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⁴ 시은소(施恩所): 혹은 “속죄 제물”, 여기서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도 번역되는데, 구약의 이스
 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의 덮개에 대한 명칭이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 안에서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절망적인 처지에 있을 때, 정해진 대로 그리스도께서 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가 드물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이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선포되었으니, 그분을 통하여 진노에서도 구원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 되었다면, 화목 된 자들로서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함을 얻었는데, 이제 바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욕심에서 떠나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약해져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 죄를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복하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지라도, 영은 의로움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내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 내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신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몸의 욕망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에 다시 떨어질 노예의 영을 받지 않고, 자녀 삼는 영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 자신도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도 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받았는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써 그것을 고대해야 합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도 합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⁵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의 백성”: 혹은 “거룩한 자들” 혹은 “성도들”

미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최종적으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는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그들이 변화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통이나 비통함이나 박해입니까?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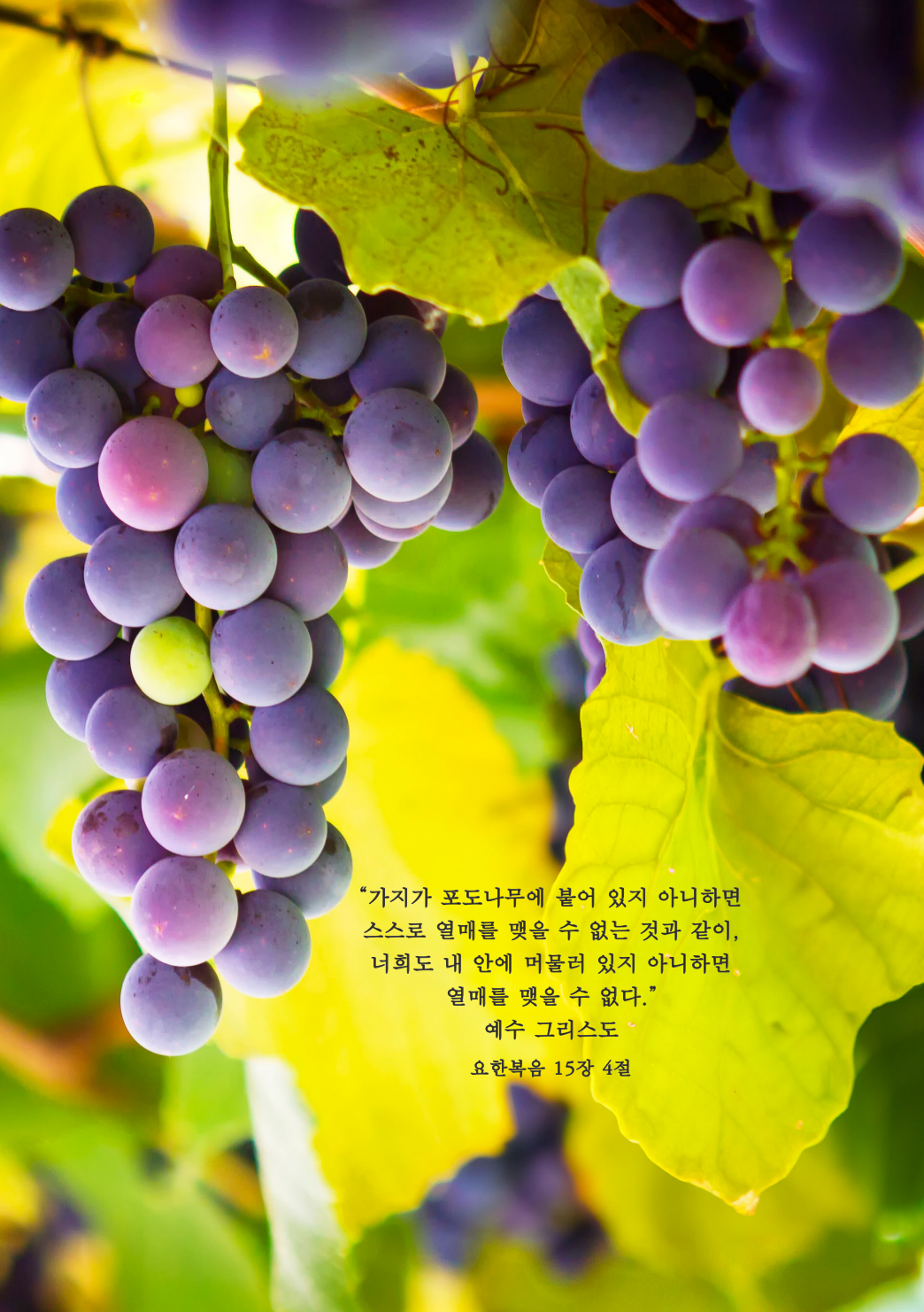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는 온종일 죽어갑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하여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실히 압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하늘군대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능력의 영적 권세자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또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빌립보서 4 장 5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4절

제13장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종교 조직에 속하거나, 혹은 어떤 지도자나, 혹은 웅변술이 뛰어난 선생에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기록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강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피하고, 어려움이나 심지어 박해를 견디어 내면서, 곧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기쁘게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사도들이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온 편지들

참된 섬김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 선하고, 기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랑은 가식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먼저 서로를 존경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렬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통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¹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 대접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 주십시오. 서로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낮은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악을 이기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에 영예롭게 보이는 것을 하도록 애쓰십시오. 가능하면 모든 사람



1 “하나님의 백성”: 혹은 “거룩한 자들” 혹은 “성도들”

과 평화롭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배고파하면 그를 먹여 주고,
그가 목말라하면 그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최고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죄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영적 권세자,
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에 의하여 만물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 가운데
 으뜸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종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벗어 버리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
 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
 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곳에
 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에 앉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생
 각을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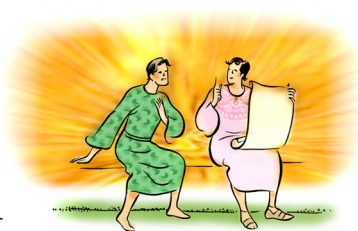


위에 있는 것에 고정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십시오. 즉, 음행, 더러움, 욕정, 악심,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전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며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과 다음의 죄들도 버려야 합니다. 즉, 분노, 격분, 악의, 비방,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 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야만인, 천박한 자, 노예와 자유인 등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새 사람과 새 소망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인 여러분은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어떤 이가 다른 이에게 불만이 있으면, 서로를 받아 주고, 서로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함께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부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로나 행동으로나 모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약속²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길러야 합니다.

영원한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철학, 곧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 못하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이 세속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지, 그리스도께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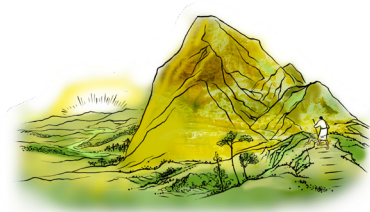
2 약속: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벗어나,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 중의 다섯 번째 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를 나타낸 것이다. 즉 십계명 중에서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라는 의미이다.

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져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겪는 이 가벼운 고통은, 우리가 받을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이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한다

우리의 이 세상 장막 집³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집,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무너질 이 집에서, 하늘의 우리 집을 덧입을 것을 사모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벗어도, 별거승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가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예비하고 계신 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3 집: 주 하나님께서 흠으로 지으신 사람의 몸은 의미하며, 그 몸은 반드시 죽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여 이 몸을 벗고 주님 곁에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든지 이 몸을 벗게 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했던 것,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졌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살아난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느 사람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십시오! 옛 것은 이미 지나갔고, 벌써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그들에게 탓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세상과 화목하고, 그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한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는 생후 3개월 된 유아의 손



“사랑은 자기의 것들을 챙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제14장 사랑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징¹은 지식이 아니며, 웅변도 아니고, 능력이나 잘되는 것도 아니며, 높은 지위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참된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학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 표징: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표시이다.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리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완전하게 되게 함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써 보낸 편지들에서 나오는 말씀

사랑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소리 나는 쟁과리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산을 옮길 만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또 나의 몸을 불사르게²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허풍 떨지 않으며,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를 즐거워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일도 사라지고,
 방언들도 그치고,
 지식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고,
 대언하는 것도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였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고, 어린아이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그대로

2 이것은 순교의 고난을 의미한다.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계명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았습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또한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눈의 쾌락과 이 땅의 삶에 대한 자랑이며, 이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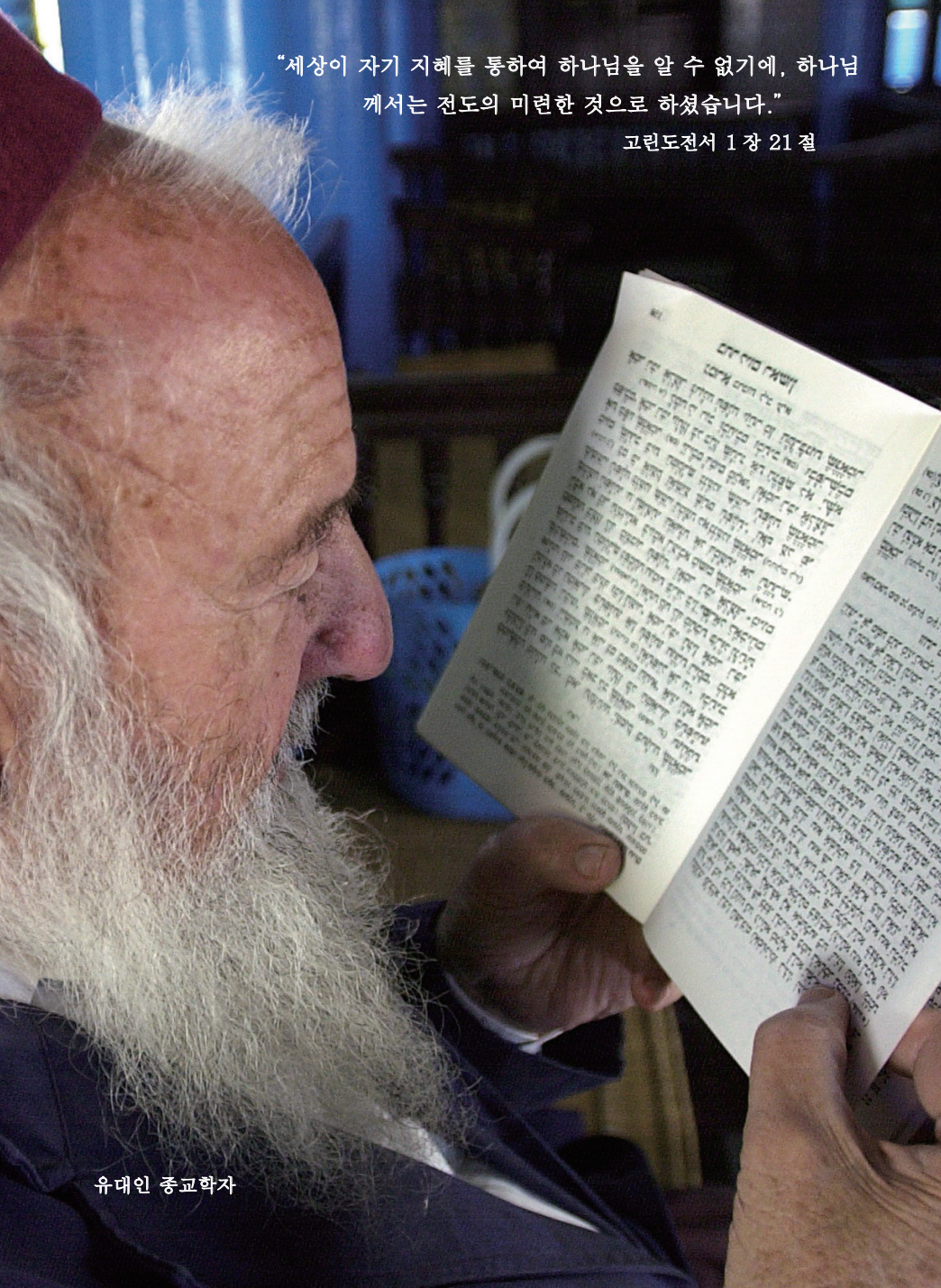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지만 유일한 불멸의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빕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
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 장 21 절



유대인 종교학자

제15장 지혜의 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주전 B.C. 971-931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광범위한 지식을 주셨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이 소문을 들은 세상의 모든 왕이 보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이 15장에 성경에서 뽑은 솔로몬의 잠언 중 일부를 실었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잠언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청춘

청춘의 때에 그대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평안한 삶

오직 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걱정 없이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리라.

근본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
를 멀리한다.



순종

내 아들이아,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거절하지 말아라.

지혜와 명철

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친히 그 입으로 지식과 명철을 가르쳐 주신다.

신뢰

너는 온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주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건강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약이 되고, 또
네 몸의 상처를 낫게 하리라.

책망

아들아, 주 하나님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달게 받아라.
주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들을 훈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시는 자를 훈육하신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모두 회초리를 든다.

행복

지혜를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
명철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다.

삶의 명암

의인의 길은
새벽빛과 같아서,
대낮을 향해 가면서
점점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밤과 같이 캄캄하여서,
그들이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
졌는지 모른다.



마음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

주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경로를 살펴보고 계신다.

자업자득

악인의 불법은 그의 덧이 되고,
악인의 죄는 그를 옳아매는 밋줄이 된다.
그 악인은 훈육이 없어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서 길을 잃을 것이다.

가증한 것

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섯 가지,
정확하게는 일곱 가지가 이것이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꾀를 꾸미는 마음,
악을 향하여 재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간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생각이 모자란 자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
이 그런 짓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하여,
그 수치를 영원토록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지식과 지혜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지혜는 그 어떤 진주보다 값지며,
너희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충고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여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충명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고,
어리석은 말쟁이는 망하게 된다.

증오와 사랑

증오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생명의 길

훈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로운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거절하는 사람은
길을 잃을 것이다.

말

말이 많으면 죄를 피하기 힘들지만,
자기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교만과 겸손

교만이 오면 수치가 따라오고,
겸손한 사람의 입은 지혜를 가져온다.

멸망

악인이 죽으면,
그의 희망도 사라지고,
그 자손에 대한 기대도 소멸한다.

믿음직한 자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비밀을 흘리지만,
믿음직한 사람은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

승리

현명한 전략이 없으면 나라가 패하지만,
참모들이 많으면 승리가 온다.

품성

인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친다.

꿀벌건

아름다운 여인이 단정하
지 못한 것은 돼지코에 금가
락지와 같다.



배품

후하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과도하게 아끼는데도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충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길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는다.

지혜로운 말

찌르는 칼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지혜로운 혀는 사람을 치유한다.

진실한 말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 혀는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동행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해를 입는다.

사랑의 매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기 자
식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히 훈육하는 사
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배움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얻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쉽게 얻는다.

죽음에 이르는 길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신중함

생각 없는 사람은 모든 말을 믿지만,
신중한 사람은 행동을 조심한다.

수고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지만,
끝없는 수다에는 가난이 찾아온다.

참음

화를 참는 사람은 명철을 크게 나타내지만,
쉽게 화내는 사람은 어리석음만 강하게 드러낸다.

평안과 질투

평안한 마음은 몸에 생기를 주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억압과 자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정의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그 백성을 쇠퇴하게 만든다.

말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없애지만,
거친 말은 분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셔서
악인들과 선한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알맞은 말

사람은 대답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데,
시의적절한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경외와 영광

훈육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겸손을 배우면 영광이 따라온다.

인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결정하신다.

책망

미련한 사람을
백 번 매질하는 것보다,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



과목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자기 의견만 내세우길 좋아한다.

경청

다 들어보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사나움

성미가 사나운 사람은 벌을 받고,
네가 그를 구해주어도,
또 그를 구해줄 일이 생길 것이다.

다툼

사람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존경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싸움에 뛰어든다.

위선

그 누가, “나는 마음이 순수하다,
나는 죄를 깨끗이 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본심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올바른 것 같아도,
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

슬기로움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훈육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훈육의 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들이 얹혀있으나,
훈육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근묵자흑(近墨者黑)

성급한 사람과 벗하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네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울가미에 걸릴까 염려된다.

술

재앙을 맞을 사람이 누구냐?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냐?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억울하게 상처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술자리를 뜰 줄 모르고
독한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용사가 힘센 용사보다 낫고,
지혜로운 사람이 힘센 사람보다 더 낫다.

의인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힘없이 망한다.

복수

너는 “그가 나에게 한 만큼
나도 해주고, 내가 당한 만큼
나도 그에게 갚아줄거야!” 라고 하지 말아라.

끈기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도 말을 듣는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지나침

이웃집을 너무 자주 가지는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싫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리라.

어리석은 반응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짓을 반복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게으른 자

게으름뱅이는 재치 있게
대답하는 일꾼 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주책

자기와 상관도 없는 분쟁에 끼어드는 사람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사람과 같다.

미친 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농담도 못해!”라고 말하는 자는
불화살과 독화살을 쏘아대는 미친놈과 같다.

거짓말

거짓말하는 혀는 그의 피해자들을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파멸을 가져온다.

자화자찬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질투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범람하는 홍수와 같다.
그러나 누가 사람의 질투심을
감당할 수 있으랴!

다투는 여자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

친구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단련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눈

지옥¹과 저승²이 결코 만족할 줄 모르듯,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단련

도가니나 화덕으로
금이나 은을 시험하듯이,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담대함

악인은 뒤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1 "지옥": 혹은 "스울"

2 "저승": 혹은 "아바돈"

자백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바른말

아침하는 말보다는 바르게 책망해 주어야
후에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고집

책망을 많이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망하고
회복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지혜를 얻도록

어린이는 매와 꾸지람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어미의 수치가 된다.

오만과 겸손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지지만,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받는다.

안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협력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수고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친구가 넘어지면,
다른 친구가 일으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넘어져도
일으켜 줄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다.
또 누가 한 친구를 공격해오면
둘이서 그를 막아낼 수도 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돈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돈으로 만족을 모른다.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만족할 수 없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죽음과 슬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상한 얼굴이 마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책망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헛된 웃음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악한 여자의 덧

덧과 같은 여자,
그 마음이 사냥하는 올가미와 같고,
그 손이 감옥의 쇠사슬 같은
여자와 함께하는 것은
죽음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벗어나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만다.

세태

죄에 대한 처벌이
빠르게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범할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악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그들이 하는 일이 잘될 리 없으며,
그들의 날들은 그림자처럼 짧아질 것이다.

망칠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더럽힘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그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를 더럽힌다.

헛됨

사람이 해 아래서 애쓰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그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날이면 날마다
고뇌와 슬픔에
젖어 보내고,
밤에도 마음 졸여
편히 쉬지 못하니,
이 또한 헛되다.



결론

이제 모든 것을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 주는 빛입니다.

시편 119 장 105절



나사렛 마을의 소녀

“...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복이 있다.”

잠언 16 장 20 절

제16장

찬양 노래와 기도

성경의 시편들은 원래 노래로 부르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나, 시험 중에 있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노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기쁨이 충만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하고 궁핍할 때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면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시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많은 시편이 대략 3,000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편¹들에서

두 가지 길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의 기쁨은 주 하나님의 교훈이어서,
밤과 낮으로 이 교훈을 입으로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
그가 하는 일 무엇이든 잘된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끼지 못한다.
주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은 살피주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묵상함

(시편 115:1-8, 11, 13-18)

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1 시편 150편 중 대부분이 주전 B.C.1010-97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 왕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진실하심을 위해
그렇게 하시옵소서.

어찌 이방 나라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시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하십니다.

저들의 우상들은 금이나 은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들은 입은 있지만

말을 못 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코는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은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은 있지만 걷지 못하고,

목구멍은 있지만 목소리는 내지 못한다.

이런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이 우상과 아주 똑같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분은 너희의 도우심과 방패이시다.

주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구별 없이 축복하신다.

주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은 주 하나님의 하늘이요,
 땅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도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도 아니고,
 죽음의 적막으로 내려간 자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산 자들은
 주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교훈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창공은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선포한
 다.
 낮은 낮에게
 그 말들을 쏟아 놓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말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온 땅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 사는 세상의 끝까지 도달한다.
 해를 위하여 하늘에 그의 장막이 펼쳐지니,
 해는 자기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나와서,
 그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떠올라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도다.

주 하나님의 교훈은 완벽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주 하나님의 증거는 믿을 만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주 하나님의 규례는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 하나님의 계명은 밝게 빛나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순수하여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 하나님의 법은 믿을 수 있어서,

한결같이 옳바르다.

주 하나님의 도는 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보다, 꿀송이에서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²이

이 교훈으로 경계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상이 크도다.

누가 부지중에 지은 자기의 죄들을 알겠습니까?

저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더욱이 주님의 종이 죄라고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죄에 빠져들지 않고,

뻔뻔스러운 거역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저의 반석과 구원자이시여,

제 입술의 말과 제 마음의 묵상이

2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

언제나 주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

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라.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영혼을 살انا게 하신다.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라.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피시고,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잔칫상을 차려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오직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회개의 기도

(시편 51:1-14)

하나님, 한결같은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소서.
저는 저의 죄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당신께만 제가 죄를 짓고
당신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선고를 내리신 것은 정당하십니다.
당신께서 심판하신 것도 옳습니다.
참으로 저는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였을 때도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께서는 속사람의 온전함을 원하시오니,
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쁨과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당신께서 꺾으신 저의 뼈가 즐거워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저의 죄에서 돌이키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제 안에 건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주소서.
 저를 당신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당신의 구원해주시는 기쁨을 제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구원의 하나님,
 피를 흘린 죄에서 저를 구원해주소서.
 그리하시면 저의 혀가
 당신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동틀 녘에 드리는 노래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 하나님
 을 찬양하여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너의 생명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너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
 주님은 너를 선하심으로 만족시키시며,
 너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신다.

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며
모든 억눌린 자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주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길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장한 일을 알려주셨다.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길 더디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충만하시다.
주님은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며,
끝까지 진노하시지는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죄 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잘못된 대로 우리에게 되갚지는 않으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위대하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아버가 그 자녀를 불쌍히 여김 같이,
주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주께서는 우리가 흙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것을 알고 계신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는,
바람 한번 불면 시들어 버리고,
그 있었던 자리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자손과
 주님의 교훈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의로우심도 변함없으시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하늘에 건설하시고,
 그 왕권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주님의 모든 능력의 천사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주님의 하늘군대들아, 주님의 종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사는
 주님의 모든 피조물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시편 119:1-8)

그 길에 흠이 없고, 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
 복하여라!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들은 그릇된 일을
 결단코 하지 않고
 주님의 길만 따라간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규례만을
 부지런히 지키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법도를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게 해주소서.
 당신의 명령을 날날이 깊이 묵상하면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신
 판단을 제가 배우면,
 신실한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의 법도를 지키겠으니,
 저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젊은이의 기도

(시편 119:9-16)

젊은이가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지키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찾았사오니,
 제가 당신의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당신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주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법도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입으로
 배푸신 모든 판단을
 저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규례들이
 보여 주는 그 길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당신의 법을 묵상하며
 당신의 의로운 길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름이 저의 기쁨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하나님 (시편 139편)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피시고
 저를 아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저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행하거나 쉬고 있거나
 당신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제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당신께서는 제 혀로 한마디의 말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앞과 뒤, 옆을 두루 감싸주시고
 저에게 당신의 손을 얹어 놓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은 경이롭고 저의 능력을 벗어나고,
 너무 높아서, 저는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계신 곳에서 제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늘에 올라가도, 당신께서 거기 계시고,
 제가 지옥³에 내려가 누울 자리를 펴도,
 당신께서 거기 계십니다.
 제가 동쪽 끝에 가서 살거나
 서쪽 끝에 가서 정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저를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분명히 어두움이 나를 숨겨줄 것이고,
 나를 비추고 있는 빛이 밤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도,
 당신께서는 이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밤에도 낮과 같이 빛이 빛나니,
 당신께서는 어두움이나 빛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내장을 지으신 분이 당신이지기에,
 당신께서 저의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조성하셨습니다.
 저를 만드심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작품이 놀랍다는
 이 사실을 저는 매우 잘 압니다.
 제가 은밀하게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조성될 때,
 저의 뼈 하나도 당신께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의 형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당신께서는 보셨고,
 저의 날이 한 날도 시작되기 전에
 저의 모든 날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고 계획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제가 이해하기에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 이 얼마나 방대한지요!

3 “지옥”: 혹은 “스울”

제가 헤아려 보려고 해도,
모래알의 수만큼이나 많아 셀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잠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소서.

“이 피에 굶주린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당신의 원수들인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맹세합니다.

주 하나님,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신께 반역하는 자들을

제가 어찌 혐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저들은 바로 저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살이 살펴보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저를 시험하셔서 저의 관심사를 알아주십시오.

제게 무슨 잘못될 것이 있는지 저를 살펴보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며,

당신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합니다!

제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렵니다!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에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기이한 업적에 대하여 저는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놀라운 업적의 권능을 말하며,
 저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증거할 것이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쁘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이 크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선하십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 위에 머물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릴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엄위하신 행적과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세세에 이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진실하시며
 그 모든 행적에 은혜로우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압제 받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때에 맞게
그들의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친히 손을 벌려
모든 살아있는 것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적에 은혜로우십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이,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를 가까이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인을 멸하십니다.

저는 저의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하나님, 우슬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씻어주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장 7절



컨사이스 바이블의 인용 성경구절

제 1 장 맨 처음에

창세기 1:1-31
창세기 2:1-9
창세기 2:15-17

창세기 3:1-6
창세기 3:8-13
창세기 3:16-21

제 2 장 “내가 땅을 파멸하리라”

창세기 6:1,5-7
창세기 6:8-22
창세기 7:1,4
창세기 7:7,9,16
창세기 7:10-12

창세기 7:17-21
창세기 7:23-24
창세기 8:1-22
창세기 9:1-2
창세기 9:9-16

제 3 장 새로운 약속

이사야 1:1-6
이사야 1:16-19
이사야 43:25
이사야 5:11-12
이사야 5:19-23
이사야 3:16-24
이사야 3:11
이사야 5:24
이사야 5:14
이사야 66:24
이사야 40:21-25

이사야 40:26,28-29
이사야 44:9-13
이사야 44:15-20
이사야 45:5-7,12
이사야 51:4-8
이사야 51:12-13
이사야 35:3-4
이사야 35:1-2
이사야 26:19
이사야 35:5-10

제 4 장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사야 42:1-7
이사야 7:14
이사야 9:6-7
이사야 11:2-5,9
이사야 52:13-15
이사야 53:1-12

이사야 49:7
이사야 55:1-3
이사야 55:6-7
다니엘 7:1
다니엘 7:9-10
다니엘 7:13-14

다니엘 7:27
 다니엘 12:2-3
 다니엘 6:25-27
 스가랴 9:9-10
 스가랴 9:16-17
 스가랴 13:1-2
 사무엘하 23:2-5
 사무엘하 7:12-14

시편 89:21-24
 시편 89:26
 시편 89:29
 말라기 3:1-2
 말라기 3:5-7
 말라기 3:14-18
 말라기 4:1-3

제 5 장 구원자 예수

요한복음 1:1-5
 요한복음 1:10-12
 요한복음 1:14
 누가복음 1:26-34
 마가복음 1:1
 누가복음 1:35,37
 누가복음 1:38
 마태복음 1:18-25
 누가복음 2:1-20
 마태복음 2:1-23
 누가복음 2:40-52
 누가복음 3:23
 마태복음 3:1-2
 마태복음 3:4-6
 요한복음 1:19-20
 마태복음 3:11

요한복음 1:29-30
 요한복음 1:34
 마태복음 3:13-17
 마태복음 4:1-11
 마태복음 4:17
 요한복음 1:35-51
 누가복음 4:14-15
 마태복음 4:18-25
 마태복음 5:1-12
 누가복음 6:24-36
 마태복음 5:13-16
 마태복음 6:1-15
 마태복음 6:19-21
 마태복음 6:24-34
 마태복음 7:7-29

제 6 장 경이로운 말씀 ; 위대한 행적

마태복음 8:1-3
 마가복음 2:1-12
 마가복음 3:7-10
 마가복음 3:20-35
 마가복음 4:35-40
 마가복음 4:41
 마가복음 6:53-56
 마가복음 6:34

마가복음 5:22-43
 요한복음 5:24-25
 요한복음 5:28-29
 마태복음 13:41-50
 마가복음 10:17-34
 누가복음 18:34
 마태복음 10:1
 마태복음 10:16-23

마태복음 10:28-42
누가복음 9:18-25
마가복음 10:13-16
마가복음 10:46-52

요한복음 3:1-12
요한복음 3:16-28
요한복음 3:30-36

제 7 장 배척당하시다

마가복음 7:1-8
마가복음 7:14-23
마태복음 23:1-15
마태복음 23:25-26
마태복음 23:29-34
마태복음 22:15
마태복음 22:35-40
누가복음 12:1-2
마태복음 12:14-21
누가복음 16:19-31
누가복음 18:9-14
마태복음 18:1-6
요한복음 7:2-9
요한복음 7:10-17
요한복음 12:44-50
요한복음 7:25-29
요한복음 7:31
요한복음 7:40-43

요한복음 7:32
요한복음 7:30
요한복음 7:45-52
마태복음 24:1-14
마가복음 13:19-27
마가복음 13:31-33
마태복음 24:37-39
마태복음 25:31-41
마태복음 10:40-42
마태복음 25:46
요한복음 11:1-3
요한복음 11:7
요한복음 11:17-48
요한복음 11:55-57
요한복음 12:1-2
요한복음 12:9-19
누가복음 22:2-6
요한복음 12:37-43

제 8 장 인류의 죄를 위하여

마가복음 14:12-17
요한복음 13:1
마가복음 14:18-21
요한복음 13:22-26
요한복음 13:30
마가복음 14:22-23
요한복음 14:1-6
요한복음 14:8-10
요한복음 14:16-18
요한복음 14:26

요한복음 14:23-24
요한복음 16:12-13
요한복음 7:7
요한복음 15:18-25
마가복음 14:26-31
요한복음 18:1-3
누가복음 22:47-48
마태복음 26:51-54
누가복음 22:51
마태복음 26:55-74

누가복음 22:61-62
마태복음 27:1-2
요한복음 18:29-38
요한복음 19:1-4
마태복음 27:19
요한복음 19:5-15
마태복음 27:24-25
요한복음 19:16-22
누가복음 23:34
마가복음 15:29-32

누가복음 23:36-37
누가복음 23:39-43
마태복음 27:45-47
마태복음 27:50
요한복음 19:30
마태복음 27:51
마태복음 27:54-56
마태복음 15:42-47
마태복음 27:62-66

제 9 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28:1-7
누가복음 24:5-8
마태복음 28:8-10
누가복음 24:9,11-12
마태복음 28:11-15
누가복음 24:13-48
마태복음 28:18-20
요한복음 20:21-22

요한복음 20:24-29
사도행적 1:3
마가복음 16:15-16
누가복음 24:50
사도행적 1:9-12
마가복음 16:20
요한복음 20:30-31

제 10 장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 1:1-3
요한계시록 1:5-19
요한계시록 2:7,11
요한계시록 3:5
요한계시록 3:14
요한계시록 17,19-21
요한계시록 3:22
요한계시록 4:1-6
요한계시록 4:10-11
요한계시록 6:12-17
요한계시록 7:9-17
요한계시록 8:2,6
요한계시록 8:7-13
요한계시록 9:1-6

요한계시록 9:12-21
요한계시록 10:1-2
요한계시록 10:5-7
요한계시록 11:15-18
요한계시록 20:11-15
요한계시록 21:1-8
요한계시록 21:9-12,21
요한계시록 21:22-27
요한계시록 22:1-21

제 11 장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소망

베드로후서 3:1-15	데살로니가전서 15:50-55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전서 15:57-58
데살로니가후서 5:1-3	전도서 1:13,17-19
데살로니가후서 1:7-9	전도서 1:14-16
데살로니가후서 2:1-12	전도서 1:20-21
데살로니가전서 5:4-6	디모데후서 3:1-5
빌립보서 3:20-21	디모데후서 3:10-14
데살로니가전서 15:35-44	

제 12 장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로마서 1:16-17	로마서 4:24-25
고린도 전서 1:18-19	로마서 5:1-2
고린도 전서 1:20-25	로마서 5:6-11
로마서 1:18-32	로마서 6:23
로마서 2:1-11	로마서 8:1-11
로마서 3:10-18	로마서 8:13-18
로마서 3:21-25	로마서 8:24-39

제 13 장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2:1-2	골로새서 2:8-10
로마서 12:9-21	고린도후서 4:16-18
골로새서 1:13-18	고린도후서 5:1-11
빌립보서 2:5-11	고린도후서 5:14-21
골로새서 3:1-20	

제 14 장 사랑

요한복음 15:9-14	요한일서 2:15-17
고린도전서 13:1-13	요한일서 5:1-5
요한일서 4:7-21	디모데전서 1:17
요한일서 2:1-6	

제 15 장 지혜의 샘

전도서 12:1	잠언 2:6
잠언 1:33	잠언 3:5-7
잠언 1:7-8	잠언 3:11-12

잠언 3:13,16
잠언 4:18-19
잠언 4:23
잠언 5:21-23
잠언 6:16-19
잠언 6:32-33
잠언 8:10-11
잠언 9:8
잠언 10:8
잠언 10:12
잠언 10:17
잠언 10:19
잠언 11:2
잠언 11:7
잠언 11:13-14
잠언 11:17
잠언 11:22
잠언 11:24
잠언 12:15
잠언 12:18-19
잠언 13:20
잠언 13:24
잠언 14:6
잠언 14:12
잠언 14:15
잠언 14:23
잠언 14:29-31
잠언 14:34
잠언 15:1
잠언 15:3
잠언 15:23
잠언 15:33
잠언 16:9
잠언 17:10
잠언 17:28
잠언 18:2

잠언 18:13
잠언 19:19
잠언 20:3
잠언 20:9
잠언 21:2
잠언 22:3
잠언 22:6
잠언 22:15
잠언 22:24-25
잠언 23:29-30
잠언 24:5
잠언 24:16
잠언 24:29
잠언 25:15
잠언 25:17
잠언 26:4
잠언 26:11
잠언 26:16-19
잠언 26:28
잠언 27:2
잠언 27:4
잠언 27:15
잠언 27:17
잠언 27:20-21
잠언 28:1
잠언 28:13
잠언 28:23
잠언 29:1
잠언 29:15
잠언 29:23
잠언 29:25
전도서 4:9-10,12
전도서 5:10
전도서 7:2-3
전도서 7:5-6
전도서 7:26

전도서 8:11

전도서 8:13

전도서 9:18

전도서 10:1

전도서 2:22-23

전도서 12:13-14

제 16 장 찬양 노래와 기도

시편 1:1-6

시편 115:1-8

시편 115:11,13

시편 115:14-18

시편 19:1-14

시편 23:1-6

시편 5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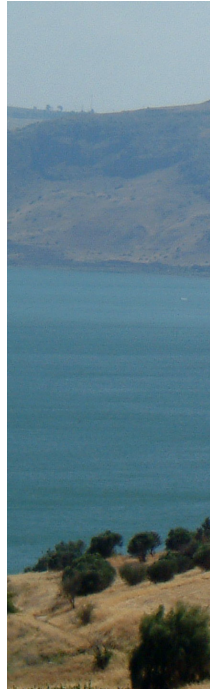
시편 103:1-22

시편 119:1-16

시편 139:1-24

시편 145:1-21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이,
전심으로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그리스도 시대의 이스라엘

0 10 20 30 40 50 km

지중해
(대해)

시돈

베니게

헤르몬 산

시리아

두로

빌립보 가이사랴

갈릴리

빌립 분봉령

가버나움

고라신

벳새다

가나

막달라

겔게사

갈멜 산

나사렛

디베라

갈릴리 호수

다볼 산

나인

가다라

가이사랴

사마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안디바드리

세젼

옴바

아리마대

벤엘

엠마오

라마

아소도(아스돗)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올리브 산

여리고

빌라델비아

베레아

유대

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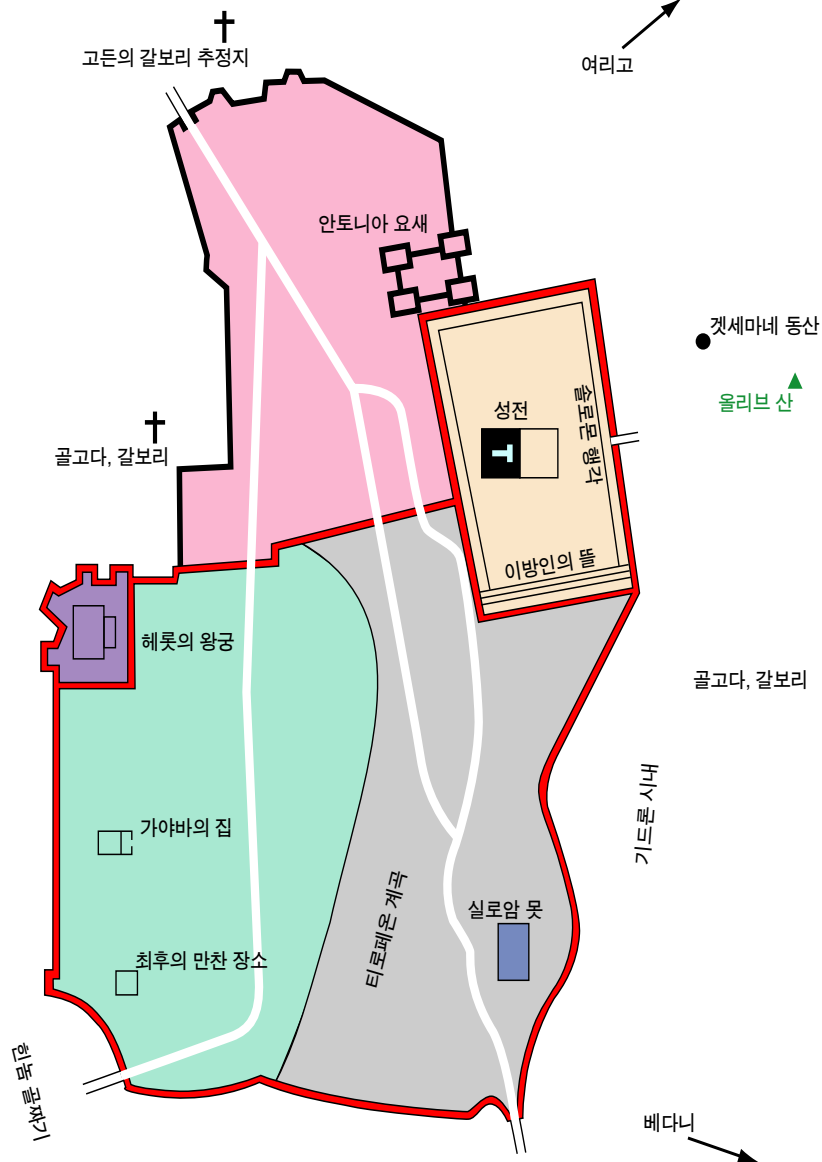
브엘세바

사해
(염해)

요단 강

그리스도 시대의 예루살렘

0 100 200 300 400 500 m



컨사이스 바이블

복음



THE CONCISE BIBLE

원 본	성경 원문들 (BHS; NA ^{28th})
옮긴이	[사단법인 섬기는손]
	컨사이스 바이블 번역위원회
펴낸이	박하권
펴낸곳	사단법인 섬기는손
등 록	고유번호 362-82-00563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백곡로 46-14, 103 호
전 화	070-4046-0584
팩 스	031-629-6891
이메일	kyungmyung.hur@gmail.com
웹사이트	www.serving-hands.org

ISBN 979-11-9870-191-6 03230



9 791198 701916

비매품/무료

03230



음원 (오디오)

번역위원장 장동수

장동수는 서강대학교와 한국침례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미국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성서학(Ph. D)을 공부했다.

부산에서 7년간 가정 교회 사역을 하였으며, 25년간 한국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은퇴하여 경남 하동에 살고 있다.

저서로는 [신약성서 사본과 정경: 헬라어에서 한글까지] [영문 밖으로 예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해석과 설교] (이상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어형론과 문장론] (요단), [요한서신: 설교를 위한 요한서신 원문연구](한국성서학연구소),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 에베소서 강해] (이화) 등이 있다.

역서로는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바울의 공동체 사상] (이상 IVP), [밀림 속의 십자가] (두란노),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등이 있다.

위 원

이 숙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한국어문학창작학부 교수
박하권	포도마을교회 담임목사, (사)섬기는손 이사장
D. Broman	(사)섬기는손, 선교사
허경명	(사)섬기는손, 선교사